

Contents

권두언	김중훈 담임목사	3	행복과 평안은 작은 감사로부터	윤선애 집사	83
발간사	한기하 장로	4	함께	정윤종 집사	84
축사	호성기 목사	5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최양미 집사	85
축사	김천수 목사	6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김신애 집사	86
			34년 전의 서원	김영 집사	87
사진으로 보는 예수마을		7	큰 일 날 뻔 했다	배경례 권사	88
인터뷰 김중훈 담임목사 내외	KCBN 미주기독교방송	13	지혜를 주신 하나님	채보문 형제	89
빙하시대 탐사 여행기	조유경 사모	19	나의 삶도 계획하시네	하진실 자매	90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훈련	박민혜 자매	91
			자랑스런 딸 되기	그레이스 지	91
교역자 코너			PGM		
다시 시작하는 월삭기도회	윤승진 목사	22	2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강혜숙 집사	92
EM을 섬기며	안예종 목사	23	PGM 전문인 선교	박재우 집사	94
아름다운 아기	홍정자 목사	24	훈련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김광남 집사	95
하나님을 사랑하는			Here & Now	조남이 집사	96
유치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김송기 전도사	26	CCM (Christ Centered Ministry)		
다니엘의 삶을 통한 교훈	유명근 전도사	28	His abundant grace and guidance	브라이언 리	97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대	박성하 전도사	34	God truly revealed Himself	에스더 남	98
4영리로 전도하기	조태성 전도사	36	예수마을 한마당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찬양으로	신경호 전도사	42	시- 예수 그리스도	박지혜 집사	99
			편지 - 목자, 총무 감사	1-12 목장	100
섬김			부부의 삶을 마치고	청년부	107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며	윤희주 장로	44	사랑하는 슬기에게	한송만 한미선 집사	110
성경 일천독을 올려드리며	송광수 장로	45	하나님의 은혜 하은아	김호진 사모	111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를 섬기며	이주익 장로	46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이윤재 집사	112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방영희 권사	47	서로 사랑하라(목장찬양제)	김숙이 집사	114
예일 크로마하프단을 섬기며	권미자 권사	48	예일의 새 가족이 되고 나서	최양미 집사	115
찬양의 본질	조성식 집사	50	감사	강문구 집사	116
			바톤(Baton) 이어가기	김희숙 집사	118
선교			조국	김주상 권사	119
Masaya para Cristo!	이동홍 선교사	52	빈혈에 대한 이해	오현섭 장로	121
축복의 통로	박인호 선교사	54	사회연금 설명	이진배 집사	123
과테말라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김근태 장로	57	장학기금 골프대회를 돌아보며	최훈 집사	124
감추인 보화의 땅 맨하탄	조종희 장로	60	은혜가 넘치는 우리교회 예일교회	임호준 형제	125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	박재우 집사	63	추수감사절 오행 시		126
함께 죽기를 원하며	신동인 집사	66	편집후기	진유정 자매	127
나만의 울타리를 넘게 한			예수마을 제 15호	편집부	128
마사야 선교대회	박제진 집사	68			
과테말라 단기선교 미션	한수연 집사	71			
필리핀 단기선교를 마치고	임정현 집사	73			
GKYM 세계한인 선교대회	강민석 형제	75			
워크캠프	출리 정	77			
단기선교	조나단 배	78			
제자훈련					
기본이 안 되었으면	류석환 집사	79			
제자훈련이 준 교훈	권영현 집사	80			
22기 201 제자훈련을 마치며	김근태 장로	81			
신앙생활의 버팀목은 체험	김숙이 집사	82			



김중훈 담임목사

쌀독과 샘물

뉴욕에일장로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그 기념으로 예수마을을 폐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마을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예수마을은 예수님을 제일 높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기뻐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바로 이곳에는 예수님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의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마당이 “예수마을” 지입니다.

20년을 돌아보며 쌀독과 샘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쌀독에서 쌀을 퍼내면 쌀이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샘물에서 물을 퍼 올리면 이상하게도 고이고, 또 고이곤 했습니다. 샘물은 아무리 퍼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그의 사랑을 나누고, 그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 주며 20년을 지나왔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100군데 이상 협력 선교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60곳을 협력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자체 성전이 없을 때도 선교지에 교회와 선교센터를 지어주고, 집 없는 사람의 집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뉴욕노회 선교부 주관 니카라과 마사야 선교대회도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전체 예산의 큰 몫을 감당해 왔습니다. 매년 단기선교를 통해서도 선교지가 놀랍게 발전하며 그 도시가 변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샘물처럼 퍼 주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교회가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늘 감사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변화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샘물같이 늘 신선한 은혜의 이야기. 원고를 내어주셔서 예수마을을 풍성하게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기하 장로
홍보출판 위원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일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여 예수마을 제 15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부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1993년 3월 3일 첫 예배를 시작하여 4번이나 교회 장소를 옮겨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는 Jewish Center에서 7년간의 어려운 예배 경험을 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지금의 아름다운 성전을 기적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모든 성도들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일 교회는 표어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예수님 제일”입니다. 예수님을 제일로 삼고 말씀대로 겸손히 낮은 것을 섬기며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립하는 해부터 선교지를 도우며 섬기는 모습에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합하고 있습니다. 현재 60곳의 선교지를 후원하고 특히 니카라과 볼리비아 필리핀에 선교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니카라과에서는 6년간 3661명의 결실을 맺는 기적적인 큰 대회를 이루었습니다. 2012년에는 “대 뉴욕지구 한인 교회 협의회” 김종훈 목사님께서 회장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고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뉴욕노회도 가장 어려울 때 노회장으로 섬기시고 장로 부 노회장은 예일교회 장로들이 5명이나 섬겨왔습니다. 총회도 김종훈 목사님께서 임원을 3번이나 섬기시고, 부족한 제가 2년을 섬기며 예일 교회에서만 5년을 총회 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려운 곳에도 어느 곳이나 마다 아니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가 예일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창립 20주년” 예수 마을을 읽어보면 예일 교회의 면면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이제 청년기이니 이제부터 정말 예일 교회의 꿈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어려운 곳을 섬기며 선교에 앞장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원고를 보내준 모든 분께 감사하며, 특히 호성기 총회장님과 김천수 노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마을을 통해 읽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기쁜 감동이 샘물처럼 넘쳐 흐르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책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수마을 제 15호 발행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출판 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축사



호성기 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예수마을 창립 20주년 기념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예일교회에서 이번에 교회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통권 15호로 예수마을을 발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15호까지 문서선교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함께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는 김종훈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선교적인 교회로 패러다임을 계속 바꾸어 가시면서 교회의 본질회복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계신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문서선교는 '이 목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합 2:2)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순간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도 순간입니다. 문서에 기록된 말씀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두고두고 볼 수 있고 사방에 퍼져나가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복음전도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마을이 앞으로도 계속 발간되면서 문서 선교지로서의 4가지 특성을 잘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전파의 목적이 갈수록 분명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이 15회인데 1500회까지 아니 더 많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중단 없는 전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다양성입니다. 어떤 특정한 연령대나 문화권을 겨냥하지 않고 3대가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선교지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독백의 장이 아닌 소통의 장이 되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화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예수마을의 15호 발간을 축하 드리며,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읽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예수마을이 될 줄 믿고 축하 드립니다. 또한,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것처럼 회를 거듭할수록 더 좋은 문서선교지가 될 줄 믿고 진정으로 축하 드립니다.

축사



김천수 목사
뉴욕노회 노회장

뉴욕예일장로교회 20주년 및 예수마을 15호 발행을 축하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뉴욕예일장로교회 담임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온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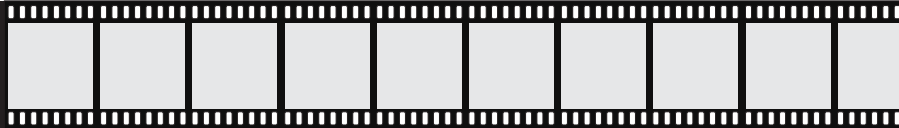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세워진 뉴욕예일장로교회가 벌써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뉴욕예일장로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부흥시켜 주셨고, 노회와 교계, 그리고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울러 20주년을 맞이한 뉴욕예일장로교회 온 교우님들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뉴욕예일장로교회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도 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뉴욕예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예수마을 15호'를 발행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예수마을' 속에는 교회를 눈물과 땀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힘썼던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마을' 속에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펼쳐보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복된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도전과 꿈을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뉴욕예일장로교회 20주년과 예수마을 15호의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취임



할렘선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목사님



예일 봄 성경학교



31기 새가족 종강파티를 마치고



할렘루야 대 뉴욕 복음화대회에서 찬양드리는 예일교회

사진으로 보는 예수마을



부활주일 세례자



1선교회 효도관광



Boys' Night 행사



선한사마리아인 행사 의 일환인 널싱홈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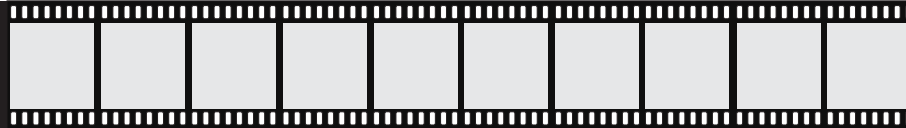


어버이 주일 선물증정 행사



본당에서드리는 CCM 첫 예배

사진으로 보는 예수마을



창립20주년 임직자 일동



찬송가 외워부르기 대회에 참가한 1선교회



프린스턴 배구대회 우승팀들



창립 20주년 예배 유아축복기도



실버클럽 야유회



가족찬양제

사진으로 보는 예수마을



과테말라 단기선교 팀 일동



과테말라 대통령궁 앞에서의 부채춤 공연



교협 배구대회 학생부 우승



6.25 참전용사 초청예배후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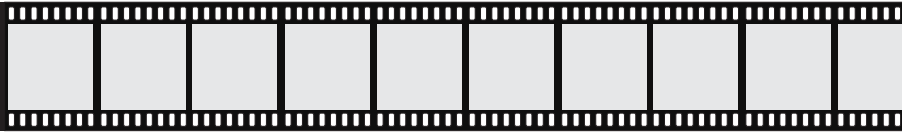


그랜드페어런트 데이



바자회

사진으로 보는 예수마을



전교우 신앙수련회



전교우 체육대회



2013년 졸업생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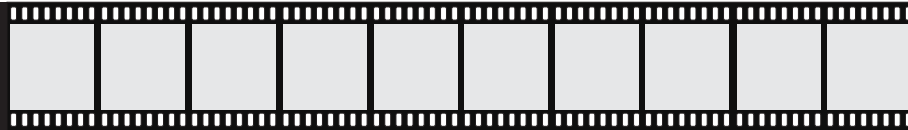
새가족 32기 종강파티를 마치고



드라마 열도의 크리스마스를 마치고



감사절찬양제 목장찬양



예일 바디워십팀의 선교대회 공연



성탄절 예배 전경



뉴욕노회 26회 연합찬양제를 축하하는 예일교회 교역자들



제1회 뉴욕 목사합창단 정기 연주회



니카라과 마 사야 전도대회를 마치고



KCBN 미주기독교방송 '다 찬양하여라'에는 지난 2월 17일 뉴욕예일장로교회 김종훈 목사와 조유경 사모가 출연하여, 오영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20여 년간의 개척 목회 역사와 가정 생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종훈 목사는 목사 집안 가족 이야기, 교회 개척부터 20여 년간의 역경 속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조유경 사모와의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러브스토리와 더불어 뉴욕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던 감회와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담담하게 솔화하였다.

조유경 사모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 신앙가정을 꾸려온 이야기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칼럼과 책 소개 등 사모라는 소명을 해 온 지혜와 경험을 나누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증조할아버지가 미국 선교사의 복음을 통해 개종한 후 3대가 목사의 길로

(오영아 아나운서): 목사님의 가정은 목회자 집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가족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훈 목사): 우리 집안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는 경북 안동군 마동면에서 미국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성실히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외아들이자 나의 조부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조부님의 팔 남매 중 장남인 아버님과 차남이 목사가 되었고 다른 남매들은 권사와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버님도 팔 남매를 낳아 다섯 아들 중 셋이 목사가 되었고 세 딸 중 둘이 사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었냐는 질문을 많이 듣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목회자의 길은 더 가난하고 어려운 길이었고, 그런 삶을 보면서 마음을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소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인 아버지께 같은 길을 가겠다고 밝히니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오라" 하셨습니다.

(오영아):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셨나요?

(김종훈 목사): 기도 속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후 아버지께 목회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리라 기대했으나 아버님은 고뇌의 얼굴로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오라고 하였고, 그 얼굴에서 자식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후 아버지께 다시 말씀 드렸더니 그제 서야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것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목회 감각이 자연스럽게 제 몸에 배어 있다는 것과 목회의 길을 가면서 부모님의 기도가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영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녀로 인해 고통 받는 가정이 있는데 짧게 권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종훈 목사):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겠지만 약속을 붙잡고 계속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25년 전 김종훈, 조유경 두 전도사를 만나게 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오영아):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시게 되었는지요?

(조유경 사모): 주일학교 전도사로 일하던 시절 친구 전도사님이 중간에 소개를 해줘 첫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막연히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왔는데 1983년에 소명을 받을 때 '너는 사모다'라는 음성을 들은 후부터는 구체적인 배우자 상을 여러 가지로 자세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모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왕 쓰임 받는 것, 근사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좋은 분을 단번에 만나게 해주세요.' 등등 하나님께 얘기처럼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만남에서 김 목사님이 본인의 비전을 들려주었는데 나의 체크리스트와 일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11월에 만나 다음 해 3월에 결혼했습니다. 4개월 만에 서둘러 결혼하게 된 이유는 목사님이 목사안수식이 4월 4일에 있는데 목회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에 목사 안수식 때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한 달 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혼생활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행복의 맛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오영아): 목사님은 사모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나요?

(김종훈 목사): 첫 만남의 자리에서 이야기 중에 목사를 신학 교수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는 말에 반했습니다. 신학교수는 목회의 경험을 쌓은 후 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온 내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찬양을 좋아했고, 청소년 목회에 대한 고민과 방향도 일치했으며, 이민 생활에 고단한 성도들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섬기기를 원하는 등 목회에 대한 모든 비전이 딱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남에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다음 해 3월 4일에 결혼하고 4월 4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매치메이커, 자신의 자격을 갖춰가며 기도한다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

(오영아): 사모님은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오래 하셨는데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조유경 사모): 본인이 먼저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왕비가 되고 싶어 하지만 왕비가 될 자격을 먼저 갖추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은 먼저 바른 신앙관을 갖추고, 좋은 신앙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매치메이커이십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살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 같습니다.

교회 20년을 책임한 사모로서, 세 아이의 엄마로서, 칼럼니스트로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오영아): 사모님은 글 잘 쓰시는 사모님으로 유명하신데 어떻게 글을 쓰시게 되셨나요?

(조유경 사모):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제가 쓰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세대 자녀교육으로 문서전도로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있던 중에 조국환 목사님으로부터 ‘빛과 사랑’ 교육칼럼 원고청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정교육에 대해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받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전에 글을 쓴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쓰기 시작하여 교회 10주년에는 그동안 ‘빛과 사랑’에 실렸던 칼럼을 모아 ‘사랑하는 부모들이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쿠파출판사)’ 책이 나왔고, 20주년에는 CTS TV 신앙에세이 방송 원고를 모아 ‘사랑으로 엮은 이야기(쿠파출판사)’가 출간되었습니다. 순간순간 말씀 따라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칭해주신 영역에 순종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자녀의 선생님을 위한 기도와 함께 해야

(오영아): 사모님의 글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 중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있던데요.

(조유경 사모):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기도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김종훈 목사의 가족사진

기도합니다. 믿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도록 기도하고 둘째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 바른 가르침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니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 잘 훈련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생활 하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한 크리스천이 먼저 되는 것

(오영아): 자녀 소개 좀 해주시지요.

(조유경 사모): 큰딸은 지금 노스이스턴 약대 5학년이고 둘째 딸은 시라큐스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막내아들은 11학년으로 아직 진로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이제까지 큰 탈 없이 잘 키워서 고맙지요.

(김종훈 목사):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처럼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기특해 했는데 5학년이 되더니 목회가 어려운 일 같다며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목회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성실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해주었습니다.

개척부터 20주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

(오영아):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개척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훈 목사): 어른 12명이 모여 성경공부를 시작한 것이 수가 늘어나 집에서만 모이기가 힘들어 여기저기 장소를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미국 교회에 장소를 문의했다가 '당신 같은 사람들 일주일에 5명은 더 온다'는 매물찬 박대도 받았습시다. 교회 장소를 찾아 헤매며 돌아다니던 중에 비를 만났는데, 우산을 쓰고 싶지도 않았습시다.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를 혼자 한없이 되뇌인 적도 있었는데 때가 되니 칼리지 포인트에 성공회교회를 빌리게 해주셨습니다. 외진 곳인데도 교회가 부흥하여 110석이 모자라게 되었죠.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성도들을 보고 아쉬워하던 중 베이사이드 유대인회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유대인 절기인 Rosh Hashanah와 주일이 겹쳤을 때는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해 주일, 공원에서 예배 중에 장대비가 무섭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 하나 불평하지 않고 천막 아래서 예배를 끝까지 잘 드렸습니다. 그때 그 찬양소리와 빛소리가 어우러져 내는 화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배 후 한 성도가 다가와 오늘을 추억하는 날이 꼭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준비해 주셔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창립초기의 가정예배 모습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사람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또

“다 찬양하여라” - 2014년 2월 17일 방송 -

주님을 열심히 사랑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 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오영아): 사모 역할을 하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기뻐던 일도 많으셨을 텐데 아팠던 일과 가장 기뻐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유경 사모): 사연이 없는 사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픔, 슬픔을 사람한테 풀려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쁜 순간들은 너무 많아서 꼽기가 어려운데, 특히 뜻밖의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간의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 목회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나면 후에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졌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영아):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종훈 목사): 유대인 회당은 음식 반입이 불가해서 베이글 로만 친교를 해오다가 롱아일랜드 록스빌 새 성전에서 처음 김밥을 먹은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새 성전은 삼십 년 된 루터란 교회였는데 삼백 명 가량 모이던 성도들이 점점 줄어 노인들만 남게 되어 본부 에서 교회건물을 팔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 노인 성도들이 자기들이 손수 지은 교회 건물이 다른 상업 용으로 팔리지 않도록 탄원서를 내고 본부와 싸우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교회건물을 사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 성전에 이사를 온 후에 미국인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루터란 교인들로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누가 들어왔다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25년 섬긴 목사와 성도들이 와서 자기들은 능력이 없어 떠나지만 이곳을 복음의 센터로 지켜달라는 부탁을 했고, 우리도 눈물로 답하며 힘을 다해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영아): 지금 이 순간에도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 한 말씀 해 주신다면?

(김종훈 목사): 우리 교회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사야 선교대회 of 놀라운 선교 역사

(오영아): 니카라과의 마사야 선교대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종훈 목사): 뉴욕노회는 약 30개 교회가 모인 작은 노회인데 회의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쉬워 선교를 하자고 결의를 하여 올해로 7 회째 선교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뉴욕노회 파송 선교사인 이동홍 선교사님이 17년 전 지나가는 이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시작한 선교가 지금은 원주민 목회자가 담임



2014년 니카라과 마사야 전도대회 참가대원들

으로 섬기는 17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1974년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를 벤치마킹한 우리 대회는 현지 250개의 원주민 교회들이 모두 힘을 합해 새벽기도를 하며 준비하고 한 번에 오백 명에서 천 명 가량이 결신하는 대회로 성장했습니다. 대회에서 결신한 이들을 가까운 교회로 인도함으로 지역교회에 부흥을 가져왔고 마사야 지역 전체에 기독교가 부흥하는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뉴욕교협 회장 역임과 목사합창단 그리고 뉴욕노회 활동 계획

(오영아): 목사님은 지난 해 교협 회장으로 섬기시면서 목사 합창단도 창단하셨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뉴욕교협회장에 취임



제1회 목사합창단 정기공연

(김종훈 목사): 당시 교협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회장으로 일 년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목사합창단은 우리 목사들이 누구보다 찬양에 앞장서야 하기에 자연스레 만들어진 것이고, 음악전공자들만큼은 못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영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활동하면서 우리도 은혜를 받고 있으며, 작년 11월 첫 정기 공연에 오신 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후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플러스알파의 삶을 살고

(오영아): 사모님은 옆에서 늘 목사님을 내조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어떻습니까?

(조유경 사모):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면 우리 목사님은 플러스알파의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며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에 맞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미처 생각 못 한 곳에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항상 목격하게 됩니다. 생각해본 적도 없는 교협 회장도 주위의 강력한 권유로 나가게 하셔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해외한인장로회(KPCA) 부회장 출마도 장로님들이 먼저 제안하고 적극 지원해주셨습니다. 한 분이라고 반대하셨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을 텐데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시대를 맡겨 주시고 그에 맞게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곳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영아): 언제 총회가 열리나요?

(김종훈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당회에서 추천을 받아 뉴욕노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되어 출마하게 되었는데 5월 둘째 주 KPCA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맺는말

(오영아):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주시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목사):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라며 KCBN 청취자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2014년이 되길 바랍니다.

(조유경 사모):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행복한 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해빙의 흔적 Alabama Hills 에서 단체사진

조유경 사모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다녀와서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2012년 10월 교회협의회 총회 때 뉴욕예일장로교회 담임 김종훈 목사님이 교협 39회기 회장이 되었다. 목사님은 2013년 한 해 동안 교협을 이끌어 갈 계획을 세우시면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셨다.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된 교회들이 교협에 많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 뜻있는 도움, 목회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일까 생각하시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전에 다녀왔던 창조탐사여행을 떠올리셨다. 마침 2013년 6월 말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하여 지난번 좋은 열매가 있었던 캐년 중심의 창조탐사여행에 이어 제2차 빙하시대 창조탐사여행을 창조과학회에 미리 예약을 해 놓은 것이 있었다. 목사님께서서는 이것을 교협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우리교회가 양보하고 목사님들을 섬기자고 그 계획을 내 놓으셨다. 교협임원들은 이 계획을 듣고 모두들 흥분하며 기뻐하셨는데 문제는 경비였다. 여행경비가 비행기 값을 제외하고 일인당 \$500이 드는 큰 프로젝트인 이 탐사여행을 위해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협 이사회에서 만 불을 후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머지 경비는 교협 음악분과가 맡아서 찬양음악회를 개최하여 충당하기로 했다. 준비가 잘 되어 이 음악회는 미자립교회 후원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연주라는 타이틀로 4월 28일 주일 저녁 7시에 퀸즈한인교회 본당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 음악회를 위해 뉴욕 줄리아드 음악원 피아노과에 최초의 아시안 종신교수로 가르치고 있는 강충모 교수가 특별출연을 해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연주를 통해 들려줌으로써 음악회를 한껏 빛내 준 것이다. 그리고 뮤지컬 His Life로 잘 알려진 Randy Brooks도 오셔서 찬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 해 주었고 뉴욕의 주요 음악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영감 있는 찬양과 연주로 음악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잔잔하고도 영감이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었다.

이번 음악회에서 가장 관심이 모아진 것은 이번 교협 39회기에 창단된 목회자 합창단이 첫 연주를 하게 된 것이었다. 음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목사합창단이 매주 월요일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나와서 연습을 했던 두 곡을 선보였는데 합창이 끝나자마자 성도들의 큰 사랑의 기립박수도 받고 뜻밖의 장미꽃 세례도 받았다. 이 같은 성도들의 열렬한 지지에 목회자들은 행복해 보였고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보는 것

같이 모두들 흐뭇해 하셨다. 이렇게 음악회를 통해 모여진 기금으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무리를 돌보느라 여념이 없으셨던 총 50명의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3박4일의 일정으로 탐사여행을 가게 된 것이다.

창조과학회에서 주관하는 탐사여행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창조과학탐사는 창조와 노아홍수의 기본 내용은 중복되지만 경유지 특성에 따라 그랜드 캐년을 중심으로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세도나, 모하비 사막을 도는 탐사여행과 빙하시대 지역을 볼 수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과 씨에라 네바다 산맥을 중심으로 하는 빙하시대 창조탐사여행이 있는데 뉴욕교협에서는 로스엔젤레스에서부터 출발하는 빙하시대 탐사를 가게 되었다. 이번 뉴욕 교협 팀의 인도는 창조과학회 강사인 최우성 박사님이 맡아 주셨다. 최박사님은 목회자들에게 경유지마다 현장설명과 함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심으로 성경 말씀들을 과학자답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

이 창조과학 탐사여행의 특징은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은 창조과학 비디오를 보며 수시로 설명을 듣게 해주고 경유지에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주목하게 함으로써 성경을 더 확실히 믿게 해주는 야외 성경공부라는 것이다. 아는 것만큼 눈에 보인다고 설명을 듣고 실제로 보게 되니 그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보고 지나쳤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 자연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손길을 느끼며 온 몸으로 진솔하게 만드는 것이 이 창조탐사여행이었다. 해박한 과학과 창조에 접목된 지식의 강의들은 참으로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강의였다. 강의를 통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뚜렷이 알고 이해하게 되는 유익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많은 질문과 답변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진화론에 젖어있었는지도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진화론의 정확한 실체를 보게 된 것도 이번 탐사여행의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한다.

같이 모두들 흐뭇해 하셨다. 이렇게 음악회를 통해 모여진 기금으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 무리를 돌보느라 여념이 없으셨던 총 50명의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3박4일의 일정으로 탐사여행을 가게 된 것이다.

이번 빙하탐사여행은 창조의 현장을 보며 성경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는 것도 있었지만 여행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웃고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 목회자들끼리 친밀감을 갖게 되어 더욱 뜻 깊었던 여행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건설적인 친교를 가지게 된 것도 여행이 주는 큰 유익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서로 몰랐던



빙하탐사여행을 추진한 교협임원들과 함께



빙하초지 산책



미 서부지역과 빙하지형 설명

탐사

이 빙하탐사여행에는 이와 같이 좋은 여행이 되도록 뒤에서 남몰래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었다. 목사들끼리 어울리면서 계속 웃도록 목이 다 쉬도록 사회를 보신 분, 혹시 몸이 불편할까봐 약품을 챙기시고 나눠주시는 분, 모든 진행을 위해 일일이 연락하며 확인하고 총 관리를 하신 분, 스낵을 준비하신 분, 사진촬영을 담당하신 분 등 말없이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 덕분에 처음으로 교협이름으로 나가는 탐사여행이 은혜로우며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은혜 받으며 성경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준 이번 빙하시대 창조탐사여행에 도전을 받은 목회자들이 많으셨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당신들이 목양하시는 교회자녀들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며 계획하시는 모습도 보였다.

모두들 영감을 많이 받은 이번 탐사여행으로 인해 설교 재료를 많이 얻고 가신다고 흥분하신 목사님들이 많으셨는데 아마도 뉴욕으로 돌아오셔서 그 주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창조탐사의 감격을 설교를 통해 성도들과 나누지 않았을까 싶다. 하여간 이 빙하시대 탐사여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여러 목회자들에게는 좋은 경험과 자료들을 제공하게 되어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의미있는 유익한 여행이었다. 이런 귀한 여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여러 교회들과 음악회를 통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신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회장인 담임목사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주신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끝으로 교협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린다.



20마일이나 되는 분화구 안의 Crowley Lake 앞에서



윤승진 목사

다시 시작하는 월삭기도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예일교회 온 성도가 함께 고백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2013년도에도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또 한 해를 무사히 건너서 새해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2014년도에도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열심을 다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삭’은 매 달 첫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월삭에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민 10:10, 민 28:11-15). 매 달 첫째 날 하나님께 나와 속죄제를 드리며 지난 달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깨끗이 씻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리며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라 하셨습니다. 소제를 드리며 인간적인 욕망이나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고운 가루와 같이 갈아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을 감사하며 기뻐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는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택한 백성들의 헌신과 감사와 기쁨을 아뢰는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백성에게 월삭에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 위에 나팔을 불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번제와 화목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월삭마다 특별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팔 불어 이웃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과 약속에 근거해서 저희 성도들도 2010년 9월부터 2012년까지 2년여 동안 각 마을이 주관이 되어 월삭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매월 첫 금요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지난 달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지난 한 달도 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구속해 주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지길 한 마음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매월 첫 금요일 마다 직분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순번을 돌아가며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각 직분을 맡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맡겨진 직분에 합당한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족했던 점은 회개하고 베풀어 주신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 드렸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월삭 기도회와 직분자 기도회의 필요를 같이 합하여 ‘직분자 주관 월삭 기도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순번을 정하여 인도, 기도, 찬양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준비하고 이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섬김을 더욱 원활하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각각의 직분을 받은 사명자 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명,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 자녀의 사명을 감당키 위해서 또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각자 맡은 일을 감당키 위해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키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힘차가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압니다.

2014년에는 예일교회 안에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일교회 성도로 인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에는 월삭마다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는 우리의 나팔 소리가 더욱 크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월삭 기도회에 앞을 자리가 없도록 성도들로 넘쳐 나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으로 더욱 선명해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 면류관 받는 모든 예일의 성도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의 향을 올려 드리는 한 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예종 목사
CCM

1 Corinthians 1:4-9

4 I always thank my God for you because of his grace given you in Christ Jesus.5 For in him you have been enriched in every way—with all kinds of speech and with all knowledge—6 God thus confirming our testimony about Christ among you.7 Therefore you do not lack any spiritual gift as you eagerly wait for our Lord Jesus Christ to be revealed.8 He will also keep you firm to the end, so that you will be blameless on the day of our Lord Jesus Christ.9 God is faithful, who has called you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Whenever I think about how God called me to be the English Ministry pastor at Yale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my heart is full of thanks. I am thankful not only as pastor to see how much the faith and spiritual hunger of my congregation has grown in the 2+ years I have been here; I am also thankful to see how much my faith and spiritual hunger has grown in the 2+ years I have been here. I am thankful to serve with a pastoral staff that truly loves the Lord and truly loves God's precious people, from the youngest of our members

to the oldest. I am thankful to serve with a leadership team that trusts the Lord's work and humbly serves with me in advancing God's Kingdom in our community. I am thankful because God's grace has been amazing every single day that I've been the pastor of Christ Centered Ministry (which is the name of the English Ministry). I am thankful that God has confirmed my testimony of the power and wonder of God in the lives of countless members. I am thankful that as inadequate as I am to serve as a pastor, God reminds me that I lack nothing as I patiently wait for the power of Jesus to be revealed to our whole congregation. I am thankful that even when struggles and hardships came, God gave our members the strength to stand firm through prayer. I am thankful that God was faithful and know in confidence that He will always be faithful.

There is no doubt that God loves Christ Centered Ministry and that God no longer wants our members to think of Yale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as their parent's church, which they attend. We have come to realize that God had a perfect plan in bringing us to and raising us up at Yale Presbyterian Church. That work was not always evident, but little by little, the vision is becoming clearer and the Lord's vision for our members excites us. We believe that much like in the time of Elijah, the Lord is raising up a remnant that will not bow down to the idols of their time, but who's heart are centered on Christ and Christ alone.





홍정자 목사
영아부

아름다운 아기

아기 모세는 부모에게 아름다운 아기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히11:23). 세상의 아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바로 왕은 애굽을 지키기 위하여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낳은 아기들 중에 남자 아기는 죽이고 여자 아기는 살리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출1:17).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낳고 몰래 석 달 동안 아기를 키웠으나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출2:3). 그리하여 그들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게 되었습니다(출2:3). 아기가 있는 갈대 상자는 목욕하러 나일 강가에 나온 바로의 공주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갈대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때에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알았습니다(출2:6). 그 때에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 있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의 딸 공주에게로 가서 그녀를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엄마는 그의 아들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그 아기가 자랄 때 까지 젖을 먹이며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출2:7-9).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는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아기에 대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아기는 아름답다.

부모가 아기를 볼 때에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창1:27).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요. 우리가 아기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창1:31).



2.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아기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입니다(출1:21).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린 산파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생명을 걸고 아기를 숨겨 키웠기에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바로 왕의 공주가 갈대 상자의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때에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히브리인의 아기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아기는 약합니다. 아기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아기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롬4:17).



4.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녀는 모세를 위한 유모를 붙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젖 먹는 기간 동안 아기 모세에게 믿음과 평생의 교훈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아기를 위한 끝없는 관심과 인내가 아기를 참된 양육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아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한 아기는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아기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2:52). 아기 모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섭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기가 지혜도 자라고 기도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영아부의 아기가 이렇게 잘 자라는 아름다운 아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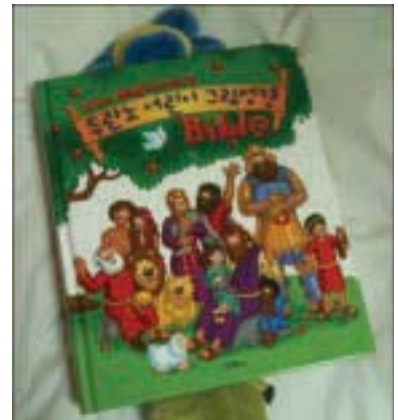
김송기 전도사
유치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치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궁금하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는 반응이 없기에 처음 유치부에 오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좀 힘들어 하시지요. 그러나 이런 어머니의 share도 듣게 된답니다. 유치부에 이안 이라는 멋진 친구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간 kindergarten에서 좀 민하게 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Joshua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안이는 엄마에게 “그런 친구들에게도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사랑하고 함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Joshua에게 nice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이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난답니다.

저희 유치부는 잠언서 22:6절 말씀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신앙 교육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 영성이 유치부 친구들에게 흘러 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싶으시면 아이들 보는 데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고 알고 계시지요. 저희 유치부 선생님들도 매 주일 교사회의 때에 Q.T.를 나누고 매일 서로 읽는 진도에 맞추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점심을 금식하며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읽기 기도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성경읽기 기도하기>는 저희 유치부에서 오랫동안 해온 program입니다. 유치부 친구들은 모두 같은 “두란노 어린이 그림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책의 같은 본문의 말씀을 매일 읽도록 매달 sheet가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중보 기도편을 만들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일 각반의 분반공부가 끝나는 시간에는 선생님들께서 자기반 아이들을 한명 한명 꼭 안으시고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간절히 축복해 주시는 그 기도대로 자라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매주일 안고 드리는 기도는 아이들에게는 일년이면 52번 축복기도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두란노 그림 성경책

두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함으로 아이들이 눈으로 만 보는 예배가 아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창세기 15장 말씀이 본문이었던 주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을 이와 같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예배실의 천장에 까만 Garbage bag을 붙이고 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붙여 놓았습니다. (유년부 오빠 언니 여러 명이 붙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예배실의 불은 켜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깜깜한 예배실로 데리고 들어 왔습니다. 한 분의 선생님은 밤하늘에 Flash-light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별을 세어 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장면을 함께 경험해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직접 거두고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준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림을 붙여서 전하기도 하고 인형극을 준비하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연극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한번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신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는 이야기를 전할 때는 한규만 선생님이 예수님으로 한진영 선생님이 긴 가발을 쓰시고 마리아로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역할을 맡으셔서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마리아가 진짜로 오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아시지요. 부부이시기에 real하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유치부에는 두 분의 남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규만 선생님 박제진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 역할을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십니다.

세번째로 매주일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반복되는 복음의 제시가 아이들의 마음에 확실한 복음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Caterpillar나 heart를 가지고 칼라만 보아도 아이들이 복음의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서 마음에 심겨지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부에서는 중요한 절기 행사를 준비합니다. 이번 “홀리윈 데이”에는 다니엘이 주제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할로윈데이는 학교를 보내시지 않거나 할로윈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픽업해 오기도 하시지요.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들 바벨론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절개를 지키며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또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 지지만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건지시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은 풀무불 속과 사자굴을 만들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다니엘과 세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유치부의 여덟분의 선생님들과 저는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명근 전도사
Youth Group

Lessons from the Life of Daniel

The name Daniel has three syllables and each one in Hebrew has a meaning. “Dan” means “judge”. The little “ee” sound (i) means “my”. And “el” means “God”. So Daniel’s name means “God, my judge”—“God is my judge”. And it’s interesting how Daniel lived up to His name. He lived a life that shouted the truth: “God is my judge, not man!” “God is my judge, and no king of Babylon or Persia!” “To God I will have to give an account for how I live my life, not to Nebuchadnezzar, not to Belshazzar, not to Darius.” “God is my judge!”

In other words, his life was centered on God. His entire life was built on God and that meant that every single area of his life was connected heavily to God. This comes out in the way he ate, the way he interpreted dreams (which was one of his jobs), the way he wrote his book, basically the way Daniel lived his life showed that he was God’s servant. And it is because God was the center of Daniel’s life, Daniel’s life looked radically different from his peers in Babylon.

Here is the one point that needs to be made: Each area of Daniel’s life was affected. From the things that he ate and drank to the job that he was called to do, there was not an area in Daniel’s life that is left outside of God’s realm. He brought every aspect of his life into submission to God, and that helped him to understand his place in this world. This is what made Daniel different, and the same idea needs to apply to us. Our faith in God, our faith in Jesus is supposed to initiate a radical change in the way we live out our lives. If we’re not living our lives as Daniel has shown, there are few key areas we need to understand.

Citizens of Heaven

One of the things that one must come to terms with is: **You are not a citizen of this world.** Citizenship has a lot of perks. For those of you who don’t have legal status in America, it’s often very difficult. Those with legal status can receive financial help from the government: whether it’s health care, school tuition, food during the summer and school. Those who are citizens are free to travel away from and back to the United States. As a citizen you can bring family members legally into the US. You have the right to vote and shape the laws of the country. The US will protect its citizens when they are victims of crimes, natural disasters or emergencies. Citizens can find easier and better jobs. Usually, for those who are citizens, we don’t give much of a thought to citizenship. However, for those who are seeking citizenship, it’s an entirely intensive process. But the thing to understand is that if we are true followers, our citizenship is not to a nation of this world, our citizenship is to the kingdom of Heaven. We are visitors in this world, and if we have that mentality, it changes on our attitudes toward the world.

For Daniel, he was an Israelite taken into captivity. He was chosen to be trained because he was physically fit and extremely intelligent. However, Daniel never mistook himself to be a Babylonian or Persian. He firmly understood that he was a man of God. No laws that were put into place superseded God’s laws. If any human laws failed to recognize God, he placed his fear of God above his fear of man. That happens before he’s thrown into the lion’s den. That happens in Daniel Chapter 1. He saw that the food that was being given to him were given to idols first. God’s law of eating was more important than eating the best food possible. Daniel knew that...no matter how high of a position he became... he would be a citizen of Heaven, a man of God.

What does that mean for us? If we are true followers of Jesus, We will be uncomfortable in this world. The laws of the world will make us feel out of place, make us feel as if we don’t know what we’re doing, that we’re close-minded. We live in a world that hates God, that declares that God doesn’t exist, that belittles all that God had decreed and done. **AND THAT SHOULD MAKE YOU UNCOMFORTABLE.** IF you are a true follower, you can’t be comfortable in this world. Everything that Jesus has said is contrary to the world’s beliefs, and if you are a follower of Jesus, you need to believe the same thing. Fans will agree with Jesus said and not live it out or back up their words.

BUT WE HAVE A CITIZENSHIP MORE IMPORTANT THAN AN AMERICAN CITIZENSHIP. This is an eternal citizenship and the perks will be so much greater than being any type of citizen of this world. You will gain eternal life, an opportunity to see and walk with God, an opportunity to see the saints of the past, hear the best sermons from the

best preachers, worship with the generations of believers in all of history. You're citizenship entails that God is always by your side, even in this lifetime. But because we are citizens of heaven, the things of this world, the secular things, the things that distract and take away from our relationship with God- those things need to start taking a back seat. We need to use our citizenship of Heaven to establish God's kingdom here on earth.

Choose not to defile oneself.

Daniel chose not to defile himself. The idea of defile is to soil or to dirty oneself. God's calling for his people to be holy as God is holy. Daniel is a follower of God, he understands his citizenship is of the kingdom of God, this becomes the next step: he chooses not to actively dirty himself with this world. The first thing I want to point out is that Daniel did not remove himself completely from this world. Now don't forget that Daniel was a very powerful political person. Back in Daniel 2:48 Nebuchadnezzar had made Daniel "ruler over the whole province of Babylon." Here in our text Darius makes Daniel one of the three presidents over the 120 satraps (or governors) of the entire empire. Sometimes when we think about Christian lives we think that we should live like monks. It's something for pastors or professional religious people; but it's not for activists, or men of affairs, or people with power and influence.

But being a follower of God has nothing to do with your busy schedule. Daniel was more immersed in secular life than most of us and he lived by prayer and discipline because God was his judge. What God thought and what God did mattered most. So Daniel lived by consulting God and by asking God to act. In this line of thought, Daniel chose to live faithfully in a sinful world. He chose not to follow the way the world moved, he chose not to abide by the laws and practices that would dishonor God.

If we recognize that we're called to live holy lives following Christ, if we recognize that we are citizens of Heaven and not of this earth, then we have to come to the decision that we won't let the world defile us. What part of our lives can be defiled? Our minds, our bodies, and our souls.

OUR MINDS

Do you know that every show that you watch, every book that you read, the writers are trying to teach you something about the world. Korean dramas will try to define what love should look like. In Romans, we are

taught to transform your minds by renewing it in Jesus Christ. For Daniel, he resolved not to eat of the king's defiled food. He set his heart and mind, he made a decision and carried it out. This is where we start. We need to set our hearts and minds properly to follow Jesus. It's not just about understanding that Jesus died for us on the cross, but it's to follow him as his disciples. If we set our minds clearly to follow Jesus, then nothing will be as important. The battle begins here, We guard our minds so that nothing improper, sinful can start creeping in. But it's a hard task because Satan is a master of mind tricks. He tricks Eve into eating the fruit by asking a simple question, which eventually led her to doubt. We learn these things so that we will not be swayed by idle arguments and false prophets.

OUR BODIES

Daniel knew that eating this food would defile his body, so he made sure he didn't eat it. There are things that can cause us to sin gravely against God. Our bodies are temples of the Holy Spirit, because the Holy Spirit lives in us. That means our health, and all things related to the body are meant to stay holy. There is no Bible passage that says no smoking or don't do drugs, but when you recognize that you worship God with your body, your bodies are to be presented as living sacrifices. As we set our minds to follow Jesus, we make sure that we don't sin with our bodies. It doesn't have to be with eating defiled food, it's tattoos, it's drugs and alcohol, it's premarital sex, it's everything, we keep ourselves from sinning.

OUR SOULS

Now God had brought Daniel into the favor and goodwill of the chief of the eunuchs. Daniel merely stood for what was right in the Lord. His witness drew the favor of God and the man who was over him. It is said in Proverbs 16:7- "When a man's ways please the LORD, He makes even his enemies to be at peace with him." Daniel valued his relationship with God over that of man. With the mind and body pure before the Lord ... his soul prospered.

At the end of ten days, these men who didn't defile themselves were healthier and better off than anyone else. Because they chose not to defile themselves with the rest of the world, God gave them unparalleled wisdom and they quickly rose in their ranks. Our souls are at peace when we are in a good relationship with God.

The importance of discipline

When we take a look at Daniel, what were the goals that

Daniel was living for? What drove him to do the things that he did? Why did he discipline himself in such a strict way? It was because of discipline that Daniel rejected the king's food and wine. He chose vegetables and water instead. It takes discipline for Daniel to keep praying even though a law was just passed that would threaten his life. But take a look at Daniel's amazing response to Darius' decree against prayer. Let's get the situation in view. Verse 2: Daniel was one of three presidents over the kingdom of the Medes and Persians. Verse 3: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and he excelled above the others, and the king planned to put him above the others and over the whole kingdom.

Daniel had an unbelievably successful future in front of him—all the influence and all the prestige and wealth and freedom he could have asked for. But this made him a target for jealousy and envy. So verses 4-9 describe how the other presidents and satraps persuaded Darius to make a law that said (according to verse 7), "Whoever makes petition to any god or man for thirty days, except to you, O king, shall be cast into the den of lions."

In other words, Daniel's life of prayer was so well known and so established as part of his character that his enemies knew that this was one place they could count on him not weaseling. And they were exactly right. That's how disciplined Daniel was. If a stranger took a look at your life, what discipline would that stranger see? Would you be disciplined in reading God's word? Would you be disciplined in praying? In worship? Or would the final conclusion is... you are disciplined in League of Legends or Korean dramas?

This is where Daniel's When Daniel knew that the document had been signed, he went to his house where he had windows in his upper chamber open toward Jerusalem; and he got down on his knees three times a day and prayed and gave thanks before his God, as he had done previously.

Working towards the Goal

The hard part is constantly working to achieve that goal. If we had a choice, we would just let everything be the way that they are. It just seems simpler and easier that way. There is no stress, no hardship, but in turn, there is no growth. But like they always say "No pain, no gain." Discipline is not about taking the steps to achieve your goal only when you feel like it, but taking those steps even when it hurts and there seems to be no progress.

US soldiers go into basic training for 10 weeks. Then

they will go into Advanced training, depending on the field that they go into. That training is anywhere from 6 to 52 weeks. Do you know why a soldier trains so much? Coast Guard training (watch the guardian); fire fighter training; police training; paramedic training. They train so that in the heat of battle or in the middle of emergencies, they don't freeze up. They don't get lost or confused, but they will automatically get into the rhythm of what they need to do. For Daniel, you need to understand that Daniel did not have to change anything. He already was praying three times a day in a stated place. There was pattern and routine and discipline. When he disagreed with the law, he started to act... not to rebel, but to declare God as his only judge. He didn't fear or tremble or even hesitate.

1) He did not act in ignorance, he acted in full knowledge of the law and the consequences. "When Daniel knew that the document had been signed, he went..." to pray. Don't forget, Daniel is right on the brink of being promoted to the main ruler over Persia. Think of the rationalizations that must have rushed to his head—"my influence would be so great if I held that position ... I can do more for God alive than dead ... it's only thirty days, and then I can pray again ... legalism is surely a worse sin than expediency! ... etc." But he rejected all the rationalizations. He knew the law. He knew the penalty. And he went to pray.

2) He did not go to the woods to pray, he went to his house. He could have kept on praying to his God without putting himself at risk if he had just gone underground for thirty days. There is no law that says you have to pray in your house where your enemies will be looking for you.

3) He did not go to the secret inner chamber of his house. He went to the room with windows (open windows)—the one in the second story of the house, the one most visible, the one that faced Jerusalem and not the palace in Babylon.

Do you begin to catch on to why I call this act of prayer defiant? Daniel is not just praying contrary to the king's decree. He is making a public statement. We would say today, he is demonstrating. He is doing an act of public civil disobedience. And he is doing so in a public way that no biblical law requires.

4) He did not pray once, early in the morning when no one might be looking, but three times a day and every day. He would make sure that he is not missed in his refusal to obey this law.

5) When Daniel prayed, he did not use words that were vague and ambiguous that some clever defense attorney could argue were really made to Darius because they didn't specify which god was addressed. It says, "He gave thanks before his God." Not Darius. And not the gods of the Medes and Persians, but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6) He did not change the way he prayed or do anything different to yield to the pressures of the law Darius had made. It says at the end of the verse that he prayed "as he had done previously." There were many ways to pray that might not have been detected and that would have fulfilled the law of his God. But Daniel prayed daringly, defiantly and in his usual disciplined way of three times a day. The thing about Daniel is that: HE DID THE SAME THINGS HE HAD ALWAYS DONE (Daniel 6:10). He was not supernaturally bold, but the one thing he did, he lived righteously before God. This is what discipline does for you. It allows you to act more courageously, to live more boldly, to understand that you were meant to live for God's whole kingdom, not some corner of God's kingdom. This discipline can radically transform our lives. Daniel becomes bolder not because he thinks he's wiser or braver, but his boldness just flows from doing the same things that he's been doing from the beginning.

When you start reaching the goals you need in your life, your life begins to change. The discipline that you live by will have grand results: Life by the Spirit will lead your life to be fruitful. You will receive the best blessing that is possibl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Lord, your God. That life will be shown by your actions and by the fruit of the Spirit that will start showing up in your life.

Your relationship with God needs discipline. The reason you need discipline is not so that you can live your faith life in cruise control, but you'll be prepared with whatever Satan throws in your way. Just because God loves you doesn't mean that you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God. It takes work, just like any other relationship you may have (parents, siblings, friends). It takes discipline to read the Bible everyday, to pray everyday, to live the Christian life every second of the day.

What discipline comes down to is understanding that our comfort in the things that we do is sinful. We avoid making the changes that we need and working on finding discipline in our lives because we just want to live the lives we want. It is "ourselves" that we think about first. That, my friends, is the root of sinful nature. Sin is putting ourselves on the throne of our

hearts where God should be. If we live by the Spirit, we no longer want to live by our sinful desires. If we live by the Spirit, our old selves are dead to us. If we belong to Jesus Christ, our sinful nature has been crucified. It is by the Spirit that you can start making the changes that you need. When you live by the Spirit, it doesn't mean you ask God... God I need discipline in this area of my life and BOOM! You get discipline. Living by the Spirit means that He gives you the grace to overcome your sinful nature and take those baby steps everyday toward that goal. There is no easy way out of this. If you think about it, you have an awesome example of discipline in front of you. That is the person of Christ. If Jesus took the easy way out of His crucifixion, you and I would not be here today. If you lack discipline, look to Christ because He's been there and He's overcome. He is your hope in that you can live the life you were meant for.

Think about the areas where you need discipline. Schoolwork, work, money, relationships with your family or friends. There are no easy ways out of these situations. Don't let your comfort take precedence over what you need to accomplish. And live by the Spirit of God. But let's think about what it means to have discipline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Excellence

Our text from time in Jeremiah's life when, worn down by the opposition and absorbed in self-pity, he just wanted to lay down and die. He was ready to abandon his unique calling in God and settle for being average. At that critical moment he heard the reprimand: "If you have raced with men on foot, and they have wearied you, how will you compete with horses? And if in a safe land you fall down, how will you do in the jungle of the Jordan?" (Jer 12:5). The question becomes: "What do you want to achieve? Greater riches? A happier life, a longer life? Is it power over your neighbors that you are after? Are you only running away from your death? Or are you seeking greater wisdom, deeper piety?"

God is telling Jeremiah that Life is difficult. He's asking if Jeremiah is going to quit at the first wave of opposition? Are you going to retreat when you find that there is more to life than finding three meals a day and a dry place to sleep at night? Are you going to run home the minute you find that the mass of men and women are more interested in keeping their feet warm than in living at risk to the glory of God? Are you going to live cautiously or courageously? God has called you to live at your best, to pursue righteousness, to sustain a drive toward excellence. It is easier, I know to be a freeloader; it's easier being a nobody. It is easier to just be Average.

It's easier to be just a face in the crowd. Easier, but not better. Easier but not more significant. Easier but not more fulfilling. I called you to a life of purpose far beyond what you think yourself capable of living and promised you adequate strength to fulfill your destiny. Now at the first sign of difficulty you are ready to quit. If this run-of-the-mill crowd of average fatigues you, what will you do when the real race starts, the race with the swift and determined horses of excellence? What is it you really want, Jeremiah, do you want to shuffle along with this crowd, or run with the horses?"

So I did a bit of research. Horses run up to 30 mph. Do you know that Usain Bolt is able to run about 23.7 mph? And if you think about it, it's only short distances that Bolt runs. But did you know that it is physically possible to outrun a horse in long distances? The Wales marathon has helped demonstrate that. Its originator was a Welsh pub owner named Gordon Green. One day in 1979 he got into an argument with an equestrian friend about the relative strengths of men and horses as distance runners. Green insisted a human could beat a horse in a long race, and to prove his point he helped instigate the marathon in 1980. For the next 24 years, he found himself losing the argument as riders on horseback left human runners behind. But then it finally happened—in 2004 a British man named Huw Lobb won. Three years later Germany's Florian Holzinger outran the horses, as did one other human contestant.

Now take a moment and imagine it, a human being outrunning a horse. You could never imagine it being possible, but it is. These runners that beat the horses are skilled, but not the most skilled in the world. It took training, discipline and effort, but it is possible. The idea to take away from this example is this: We are called to live big lives. Our abilities and the things we can accomplish with God strengthening us goes beyond what we can ever imagine. For us, we live our lives struggling just trying to get by, but God has a bigger vision for our lives, it's to run with the horses. We're not called to live easy lives or take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Often we're told that God's sole desire is that we have a happy life. The only problem with that theology is that it is not Biblical- every command that Jesus gives us is hard, really hard. He commands us to love our enemies, and to turn the other cheek and to give up our families for his sake, and to lay down our lives, to carry the cross. However, in the process of following Jesus, we gain the opportunity to lead lives that are worth more than we could have ever imagined. We're meant to live for the kingdom and glory of God. That's how we were created, and if we understood what that

meant completely, how different would our lives be? Wouldn't our lives be more like John the Baptist, declaring that people should repent? Or like Paul, preaching the Word so that people could understand the Gospel? In our actions and words, wouldn't we speak only out of truth and love, without jealousy or anger? If we lived all for God's glory, wouldn't our lives be completely different than what we experience every single day? So the question is why? Why aren't you going around being perfect ambassadors for Christ? Why aren't you doing things to help people know more about God? Take a good look at your life. Have you really done anything for God's kingdom? So what is the problem? The problem is that we're so focused on the little problems of our lives to be thinking about the greatness of the glory of God. We get so caught up in our own lives that we forget our bigger purpose- the glory of God. Instead of living for "God's Kingdom", we're stuck focusing on little kingdoms of ourselves.

You are called to excel in what you do. Too many times have Christians just settled with mediocrity. And it shows. Instead of perfecting what we're called to do, we just do enough to get by. Our mentality is... I don't need to get the praise of others, God just needs to be happy with what I do and so we present God with things that are not the best of our abilities. We slack off and make the excuse that we're giving God the best we could at the moment, and we don't push ourselves to excel. No one is inspired by Christians anymore. Rather, Christians are ridiculed and believed to be close-minded. No one looks at a Christian and says.. I wonder what makes that person so different. And that is our fault. We have stopped striving for excellence.

Daniel is the top advisor for 4 different kings Nebuchadnezzar, Belshazzar, Darius, and finally Cyrus. Daniel was not a Babylonian or Persian, and yet he found himself at the right hand of all these kings. Normally, when a new king takes over, they evaluate the advisors- either keeping them or killing them off. Daniel was constantly found to be amongst the top advisors.

You become the best so that you can present the best before God. Abel and Cain offered their offerings, Abel went looking for the best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Cain just offered some of his crop. The difference is the preparation, the dedication. If you truly honor God, then you must understand that He deserves the best.

So be the best in all that you do. Be the best son or daughter. Be the best choir member, the best student, the best family member. The best eater. Be the best and

honor God by presenting the best. Live your life at a standard that is beyond what is considered normal. Run with the horses and live big lives of excellence.

The end result is you turn people to God. Because of Daniel's exploits to the lion's den, King Darius declares that all people within this kingdom is to worship the God of Daniel. When you're the top of your field, you will be recognized. However, it's not to promote oneself, you turn it over and give the glory to God. Tim Tebow and Jeremy Lin are two recent cases. They were winners and excelled in their fields, excelled to the point where their voices (praising and honoring God) were listened by media outlets all over the world. That is the point of excellence- not to lift oneself or promote oneself (like in the story of the Tower of Babel), but it's to lead others to Christ. Through your lives of excellence, you are promoters of the Gospel, you are those who challenge others to know about God. Your life is not meant to be lived in a small way, but to increase the foundations of the kingdom of Heaven.

Daniel was a normal guy. There were three things he did differently: (1) lived life with only God as his judge; (2) disciplined in the areas that built his connection with God; (3) strove for excellence in order to glorify God. Let's learn from His example and start doing huge things for God's kingdom!





박성하 전도사
글로벌 찬양대 지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일컬어 “찬양의 종교”라 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의 주인이시며, 찬양중에 거하시고, 찬양 중에 임재하시기 때문이며, 찬양중에 능력을 나타내시고, 찬양하라 명령하시며,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사43:21), 찬양의 내용은 영광과 존귀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주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히13:15).

교회음악은 예배를 위한 음악인 바 오르간을 중심으로 한 기악음악과 회중 찬송, 찬양대 찬양으로서 예배적 기능과 치유적 기능, 선교적 기능을 갖고 있어 교회 성장에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찬양대원은 예배음악 담당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의식은 음악으로 시작하여 음악으로 끝이 납니다. 예배에 예배음악이 있어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신령, 거룩해집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히고 경배 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 음악행위가 이를 더욱 빛나게 하며 경건성과 진정성을 보장해줍니다. 현재의 일반적인 예배의식을 중심으로 볼 때 찬양대가 교회를 대표하여 담당, 표현하는 보편적인 음악행위순서는 입례송(응답송)-> 기도송-> 찬양-> 봉헌송-> 축도송-> 폐회송 등이 있습니다. 폐회송을 제외한 모두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예배행위이므로 삼위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거나 그 이름이 망령되지 않도록 성의를 다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성찬식을 비롯하여 성탄절, 부활절 등 교회절기에 따른 특별 찬양 내지 축하 연주회 등이 찬양대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찬양대원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한 음악행위를 담당하는 책임의식과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전심으로(시86:12), 공교히(시33:3)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가 되도록 정성을 다 할 것이 요망되어집니다. 그리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마25:21) 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찬양대는 교회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대가 교회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하나님께 예뻐 보이기 위하여 솔로몬의 아가서의 신부(아4:10)와 같이 아름다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에 대해서도 모름지기 교회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에 걸 맞는 세련된 자세를 갖춰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심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표정, 줄음, 앉은자세, 머리/얼굴 만지기, 잡담, 두리번

거리기 등) 복장, 찬송하는 모습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새 신자분이 “생전 처음으로 예배드리던 날 찬양대를 보고” 그 때 경험을 계기로 지금도 집회에서 자주 찬양대에 대해 이야기 하곤 합니다. 찬양대를 하나님도 보시고 성도들도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 찬양대는 예배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세들을 생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찬양대는 복음의 전파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찬양대는 음악을 통하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권면 강화하는 말씀의 대언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음악을 통한 말씀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찬양대는 음악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회중으로 하여금 예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음전파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원들은 음악적인 면에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신앙적인 면에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 인격을 갖춘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한 찬양대의 음악은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은 정신으로 준비되고 연주되어 하나님께 열납되도록 드러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찬양대의 찬양이 교회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과 역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용감하게 부르십시오, 힘을 다해 목청을 높여 당당하게 열심히 찬양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하나님께 올리는 선율이 되도록 하되 자신의 노래를 다른 사람들과 맞추어 겸손히 불러야 하겠습니다. 곡을 주관적 감정에 빠져서 너무 느리게 부르지 말고 템포에 맞춰 적극적으로 치지지 않도록 불러야 하겠습니다. 가사 한 마디 한 마디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고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영적인 찬양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헌신하는 참 예배의 자세를 갖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의 수준은 봉사자로서의 의무와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대원들의 신앙적 열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원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찬양을 할 때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열납 되어지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글로리아 찬양대



조태성 전도사
새 생명 전도

4영리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에 매주 토요일이면 북이며 팽과리를 몸에 두르고 나타나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북을 등에 업고 양쪽 발에 줄을 연결하여 걸을 때마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게 하고 손에는 팽과리를 치며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껌이며 사탕을 나누어 주면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따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따라 했고, 이 말은 오랫동안 내 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어린 시절 북 치며 "예수천당"을 외치며 전도하던 할아버지가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요?

전도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 그분의 품에 안기어 그 심장소리를 듣는 자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전도는 명령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쁜 소식을 땅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명령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도 있어야 하겠지만 하늘 나라의 기쁜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4영리"라는 용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쉽도록 4영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그 전도방법을 소개하니 성도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4영리란 무엇인가

Bill Bright 목사에 의해 고안되어, 원래 'The Four Spiritual Laws'라 명명되어진 4개의 기독교 기본 원리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의 실현과 성취를 위하여 국제대학생선교회(CCC-Campus Crusade for Christ)가 제시하는 전도방법으로 복음에 대한 핵심적 4가지 원리입니다. Bill Bright 목사는 1921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코웨타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브라이트 목사는 1945년 어머니와 교회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후, 5년 동안 프린스턴신학교와 풀러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1951년 풀러신학교를 졸업하고 UCLA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단체인 국제 대학생선교회(CCC)를 창립하였습니다.

1956년 여름수련회에서 강사였던 유명한 판매기술 담당자의 전도기술에 대한 명료하고 반복적이며 쉬운 내용의 말을 전해야 한다는 강의를 통해 4영리 전도방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의 저서 간사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쳐 더욱 짧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1965년 'The Four Spiritual Laws'의 초판 인쇄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엑스포 74 대회 때에 33만 성도의 훈련을 통해 소개 되었고, 현재 전세계 주요언어로 30억 개가 배포되어 세계에서 가장 대중화 된 전도 소책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문화와 계층에 맞춰서 그림과 용어와 디자인이 고려되어 개발된 4영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4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 4영리를 소개합니다.

2. 4영리의 원리

(1)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4영리는 제1원리에서 신문(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신문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3장16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10장10절)

미국에서 4영리가 만들어질 당시 복음전도는 당연히 죄를 제일 먼저 언급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4영리 또한 당시 미국의 대다수의 보수적 교회들의 전도 방법대로 제1원리에 인간의 죄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으나, 인쇄소로 넘겨지기 직전 그 내용이 변경되어 제1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상황을 빌 브라이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제 1원리에서 인간의 죄를 강조했었으나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도록 감동을 주셨다. 원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왔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복음전도의 기초가 되어왔다. 그래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보네트를 불러내어 제1원리를 ‘당신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로 수정하라고 말했다.

CCC에서는 예수님의 전도를 예로 들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선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요한복음4장) 예로 들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방인 여자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먼저 다가갔고, 자신이 그녀에게 생수를 주실 의향이 있음을 언급하셨으며(요한복음4장7절-14절), 그 다음 그녀의 삶의 문제를 언급하셨고, 궁금증을 처리하시며 마침내 그녀가 주님을 영접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사영리의 제1원리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제2원리는 사람(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3장23절)

제2원리에서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고 말합니다. 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체험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죄의 증거로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적인 마음이나 무관심한 마음이라고 했으며,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말하면서 사망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전적타락과 부패를 믿는 종교개혁 사상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이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 등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3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기독론)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5장8절)

제3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로마서5장8절),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고전 15:3-6), 그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요한복음14장6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14장6절)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4)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4원리의 핵심은 인간의 구원(구원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복음1장12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에베소서2장8-9절)

제4원리에서는 구원론을 볼 수 있으며, 의지적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이야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즉 믿음으로 그 후에 4원리에 주어진 계시록 3장 20절의 문 밖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이야기 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도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영접기도로 인도합니다. 즉 4영리 전도 방법에 있어서 영접기도는 반응으로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4영리 전도방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니 여러분께서 전도를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 4영리 전도방법

(1) 4영리 전도방법

가. 4영리를 처음 대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 ㄱ. 4영리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 ㄴ. 4영리라 불리는 이 소책자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 ㄷ. 저는 뉴욕 예일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4영리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 ㄹ.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알려 주는 4가지 원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나. 4영리 소개 시 주의할 점들

- ㄱ. 강압적인 기교를 쓰거나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 ㄴ.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사영리를 전하는 방법은 그대로 소리 내어 읽어주는 것입니다.
- ㄷ. 만일 상대방이 내용에서 벗어난 질문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사영리를 다 읽은 후에 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 ㄹ.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ㅁ. 만일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읽기를 중단하고 “이해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합니다.
- ㅂ. 상대방이 잘 볼 수 있도록 읽는 곳을 펜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 ㅅ.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또한 그분이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도록 권면합니다.
- ㅇ. 처음 4영리를 전했을 때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 ㅈ. 만약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한다면 다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하고 의논하기 위해 만날 약속을 하십시오.
- ㅊ.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를 다시 만나면 그에게 여러분과의 대화에 대해 더 생각해 보았는지 또는 무슨 질문이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2) 4영리와 401 제자훈련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있기 전까지 세상은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죄에 매인 인생들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는 깨졌습니다.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교회와 함께 계셔서 사망에 매인 자들을 풀어 주는 사역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가장 고귀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명령이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401 제자훈련을 통해 사영리 전도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01 제자훈련을 통해 복음전도가 주님의 지상 명령임을 이해하고 지상 명령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10-20분의 짧은 시간에 전하고 영접 기도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실패할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훈련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101 201 301 401 제자훈련을 받은 분들은 든든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자라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제자들이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 예일교회의 자랑이라고 믿습니다.

4.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처음부터 4영리라는 말로 시작하면 낯설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전도 대상자의 심리 파악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쉬운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전도 대상자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자

효과적인 전도라는 것은 전도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시작하는 것이지 전도자 개인의 관점으로 무작정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민감할 때에 전도자의 일방적인 전도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 중심의 참된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했다고 해도 전도 대상자가 그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위한 필요나 의욕이 없다면 결단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2) 인간관계를 통한 자연스러운 전도를 추구하자

전도자들이 전도함에 있어서 단 시간 내에 혹은 단 한번의 접촉으로 전도 대상자의 결단을 얻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전도의 결실이 단 한번의 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반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알아감으로 점차 마음의 긴장과 경계를 풀고 복음이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43-47절에서도 오순절의 경험과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변화 되었고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3년동안 함께 가족처럼 지냄으로 복음의 결실을 맺으셨습니다. 주님의 전도 원리는 단순히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생활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전도자가 4영리를 들고 혼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4영리를 전하는 것 보다는 전도자 자신의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일상의 생활 가운데 전도자가 그의 삶의 모습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여 주고 전도를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는 책임감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와 충분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일방적인 전도는 피하자

효과적인 개인전도는 전도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전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자신의 이성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혹은 극적인 회심이나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더욱 더 전도 대상자의 상태에 민감해야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하고 결단시켜서 양육까지 시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4영리에 있는 것 외에도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4영리 소책자 한권을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자신이 암기한 것을 전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접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된 실패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4) 결과에 치우치지 말자

전도자가 반드시 전도 대상자를 결신 시켜야 하겠다는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고 전도가 일이 되고 맙니다. 전도에 성과가 없으면 이것은 전도자에게 의욕상실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회심을 통한 결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도자들이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준비한 복음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전해야 합니다. 단지 모든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전도자가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한 복음이 모든 전도 대상자들에게 회심과 결단을 불러 일으키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도자에게는 결과보다는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전도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마치면서

4영리 전도가 기독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4영리 전도는 전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도를 설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도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만 합니다. 즉 전도자 자신의 생활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복음이 전달되고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던 할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이어져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다"(사도행전13장36절)라는 말씀과 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그릇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전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4영리에 대하여
들어 보셨습니까?**



신경호 전도사
예일 찬양단, 청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찬양으로

안녕하세요 신경호 전도사입니다. 먼저 제가 2013년 1월에 예일찬양단과 청년부 담당전도사로 부임해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일찬양단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찬양사역한지 벌써 15년 정도 되었는데 실례로 찬양하는 시간이 짧다는 의견도 처음 들었을 만큼 우리 예일교회성도의 찬양에 대한 열정은 크고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교인뿐만이 아니라 예일 찬양단 단원들에게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찬양팀을 하면서 보면 대개 은혜로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도 열심히 하지 않으려거나 아는 노래만을 부르려고 하고 새 노래를 거부하는 경향이 찬양팀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만, 예일찬양단은 연습에도 열의를 가지고 예배 때처럼 열심히 찬양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박자나 음표를 지키려고 연습 중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쳐가며 연습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열정은 바로 찬양단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찬양단원 중에 제일 연장자이신 김영자 권사님이 찬양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어떤 단원보다도 유연하고 아름다운 동작의 율동으로 찬양을 하실 때면 마치 지금 막 흥해를 무사히 건너 소고를 치며 백성과 함께 찬양을 하는 미리암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짖은 출장으로 주일에도 찬양단으로 함께 할 수 없었던 날이 많아지자 찬양단 김동환 단장님은 새벽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직장을 그만두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고, 또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찬양단의 집중연습과 기도회로 모이는 날에는 이정은 집사님과 함께 단원들을 위해 손수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주셨습니다. 그런 김동환 단장님의 솔선수범의 자세와 열정 그리고 유머는 찬양단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드림을 치시는 강호정집사님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프로처럼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순수함과 열정으로 매주마다 연주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집사님은 댁에 드림을 구비하고 연습을 하시는데 회사업무로 인한 짖은 출장이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출장 때에도 드림스틱을 가지고 가서서 연습하셔서 음악적인 요구에도 언제나 순종하시는 겸손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 있게 연주하면서 찬양의 전체적인 리듬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춤추는 베이스스트(Bassist)하면 다 떠올리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배준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의 연주는 찬양을 부르는 이에게 기쁨과 입가에 웃음을 줍니다. 사실 멀리 뉴저지에서 오는 이배준 집사님은 3부 할렐루야 찬양대의 베이스 솔리스트이기도 하시지만 청년 때부터 찬양단에서 같고 닦아온 악기연주도 수준급실력으로 베이스기타를 찬양에 따라 춤을 추면서 연주하고 강호정집사님의 출장 때에는 드림연주도 하시는데 멀리서 길이 막히면 2~3시간을 운전하고 오시는 그의 열정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박성우 안수집사님은 베이스기타로 때론 노래로 그리고 방송실에서는 음향과 악보자막으로 수고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연주자가 없을 때에는 웃으시며 나타나서는 어느 자리에서나 공백을 채워주시는 다재 다능한 센스쟁이입니다. 박 집사님이 기타 치며 부르시는 스페니쉬 찬양은 듣는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실 만큼 뛰어납니다.

그리고 최병철 집사님은 찬양이 길어질수록 더 힘을 내어 찬양하시는 분으로 정말 찬양을 좋아하시고, 또 말없이 마이크와 cable정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본당에 프로젝터의 전구를 교체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다 꺼려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나서는 잠깐도 지체하지 않고 날렵하게 올라가서 전구를 교체해주시는 신사 중에 신사입니다. 임미라 집사님은 마이크준비와 악보준비 그리고 언제나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이 모든 준비를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며 특제소스의 맛있는 등 갈비를 찬양단에게 대접해주셔서 그것을 먹고 힘차게 연습하였습니다. 또 이경화 집사님은 가녀린 체구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없는 선이 굵고 드라마틱한 보이스를 가지고 계셔서 지난 가을에는 연극 '룻'의 주인공으로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도 훌륭하게 소화해내시고 풍선아트와 꽃 장식도 하시는 다재 다능한 집사님입니다. 피아노 연주와 키보드를 능수

능란하게 다루는 김경민 자매는 전체적인 음악을 조율하면서 노래하는 싱어(singers)팀과 악기팀의 다리 역할을 순종으로 감당합니다. 플러싱에 살면서 때론 교회 오는 차편이나 교통편이 불편하기도 할 텐데 전혀 내색은 커녕 적극적으로 교회에 먼저 와서 연습하며 준비하는 마치 사역자 같은 자매로써 청년부에서도 보이지 않게 청년부의 여러 가지 굵은 일을 순종하며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새로 키보드로 봉사하고 있는 박지숙 집사님은 지난여름 ‘전교인 수련회’ 부터 키보드로 연주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할 만큼 노래도 잘하지만 예전에 키보드(keyboard)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치는 예일찬양단

로도 연주하셨던 경험과 항상 어떤 악기의 소리를 내야 할지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열정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청년부에서 아름다운 세 여자 청년들로 진유정 자매, 김지현 자매, 하진실 자매는 찬양단의 목소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은혜롭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이들은 찬양단 내에서도 분위기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교인들이 볼 수 있는 악보 자막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방송실의 김건아 집사님의 수고와 지난여름 교인수련회에서 특별히 드림연주로 수고해 준 채보문 형제와 악보자막 제공으로 수고해 준 지 에스더 자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가을까지 키보드로 수고해주신 홍지연 사모님께도 지면을 통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단원들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에게서 주님을 발견하고, 찬양단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도 주의 은혜와 기쁨을 발견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부탁 드리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시간 나면 할게요’ 혹은 ‘나중에 할게요’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2-3시간을 운전해서 오시는 단원, 출장이 잦은 단원, 연세가 많은 단원, 건강이 좋지 않은 단원, 교통편이 불편한 단원,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와 남편도 챙겨야 하는 단원, 여러 사역을 겸하고 있는 단원 등 어찌 보면 조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고 연습하는 찬양단을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일찬양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시간이 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나서 봉사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나이가 젊어야만 찬양하는 것도 아닌가 봅니다. 쉽게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환경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닌가 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찬양을 막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마치 호흡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빠서 숨 쉴 시간도 없다고 숨을 하루에 한번만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숨 쉬는 것도 아까워서 숨을 아낄 수도 없습니다. 건강이 나쁘다고 숨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찬양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라는 오래 전 어느 날 찬양대원의 기도에서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시간을 드려 연습하여 드리지만, 이 말은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이 내 신앙고백이고 곡조 있는 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연습과 실재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닐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예배가 내 삶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과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불려야 할 찬양은 마치 좀 전까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고, 그것이 아니면 애굽의 칼에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보호아래 안전하게 건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려고 전차를 타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성난 홍해의 파도 속에 빠져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과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온몸으로 기뻐하며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일찬양단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윤희주 장로
창립 20주년
행사준비위원장

2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 하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를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예수님 제일"이란 표어 아래 사명으로 주신 1)영감 있는 예배 2)심자가 사랑의 교제 3)땅끝까지 복음 전파 4)천국 일꾼 양성 5)이민 가정의 치료 6)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란 실천 목표 아래 세부적인 실천 방향을 세워 20년 동안 한결 같이 달려오게 하셨다.

뉴욕예일장로교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17 New South Road, Hicksville NY 11801 Tel: (516) 938-0183 Fax: (516) 938-3824 www.yalechurch.org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천성인 것이다. 20년 동안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광야 같은 세상을 달려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기념 행사를 준비 하게 되었다. 20주년 사에는 10주년 사 15주년 사에 이어서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록 하였다. 설교집에는 '견고한 믿음' '행복한 교회 삶'에 이어서 5년 동안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복된 소나비' 라는 책 속에 일부분을 기록 하였다. CD에는 유년부 중 고등부 청년부 교역자 두나미스 에이레네 및 각 중창팀 예일찬양단 크로마하프 예일오케스트라 등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16곡을 녹음하게 되었다. 20주년 기념 찬양제에는 전 교인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에 충만을 입게 되었다.

연극으로는 드라마 사역 팀들의 열정과 노력과 헌신으로 오랫동안 준비한 창작 드라마 룿(Ruth)을 공연할 때 전율과 감동으로 곳곳에서는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우리들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이고자 20주년 기념 부흥회로 천국 잔치를 하였다.

성경 일천 독 쌓기는 전 교인이 동참하여 5년 동안 준비 하고 있다. 5월 세 번째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주일이다 복된 이날을 더욱 빛내기 위하여 교회 구석 구석을 청소하고 카펫도 새로 깔았다.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때는 신학생 3명 고등부 졸업생 2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고 15명의 임직자도 세웠다.

2008년도에 필리핀에 파송한 박인호 선교사 사역지에 20주년 기념교회를 설립 하기로 하고 재정을 확보하였다. 저희 교회가 5개월 동안 2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우리 모두는 손에 손을 잡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내일도 또 내일도 예일의 행전을 쓸 것이다.

"주께서 심자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사 26:3). **마라나타!**



송광수 장로
교육위원장

예일교회 20주년을 감사 드리고 성경 일천독을 올려드리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시 145:1-3).

다윗의 찬송이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님들이 올려 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님 제일로 20년 동안 같은 목표로 신실하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 드렸을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본을 보일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주년을 감사하며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더 나은 20주년을 향한 (시 37:23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 하시나니) 발걸음입니다. 이를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순종케 하셔서 이루어 주실줄 믿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20주년 감사예배, 임직식, 찬양제, 새생명축제, 부흥회 등을 통하여 은혜 받게 더욱 감사 한것은 15주년때 하나님께 약속하고 시작한 성경일천독 쌓기에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왕상 3:4, 역대하 1:6) 솔로몬의 일천번제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 같이 말씀을 읽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새롭게 되며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키위해 어린 영아부로부터 1선교회까지 전 교우들이 동참 하심을 감사 합니다.

(시 107:20)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데도 육신이 연약한 성도 들이 말씀으로 나음을 입으며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일어설수 있게 하시고 나약한 심령이 강건케 하시고, (욥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 나이다.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이 말씀을 읽기도 하여 시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빛 되신 주님이 새롭게 걸어 가는 또 다른 20주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주익 장로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39대 이사장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를 섬기며

신년 감사예배와 하례 만찬을 시작으로 39회기를 시작한 대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협”이라는 표어를 걸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9회기 회장으로 섬기신 김종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혼자 두시지 않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협의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2013 할렐루야 대 뉴욕지구 복음화 대회 전경

때론 거친 바람이 일 때도 있었으나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셨습니다. 부족함으로 가슴을 졸일 때에도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김없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미자립 교회 후원을 위한 ‘찬양과 연주’ 음악회를 통해 여러 교회들에게 응원의 박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교협 연합 체육대회는 뉴욕지구에 속한 교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섬기는 교회와 단체들도 참가해서 함께 하나되는 귀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빙하시대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 오셨고, 우리들의 얕은 지식으로만 알아왔던 창조의 역사와 오묘한 섭리를 직접 체험함으로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렐루야 대 뉴욕지구 복음화 대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뉴욕의 크리스천들에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위해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가기로 선언하고 더 나아가 한인동포사회뿐 아니라 미국 더 나아가 조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패를 증정 받는 교협회장 김종훈 목사

한 회기를 마무리 하면서 부족한 제가 뉴욕지구 한인교회 협의회 이사장 직분이라는 중책을 섬겼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협의회장 김종훈 목사님과 이사회 임원들의 수고와 헌신 없었으면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었을까 하고 회고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을 해주신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덕분이라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영희 권사
권사회 회장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시편 34:1-4)

2013년은 우리 예일 장로교회가 20주년을 감사 드리며 함께 기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또한 새롭게 권사회를 창립하게 하셔서 힘을 모아 출발케 하셨습니다. 세우신 권사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개인으로는 부족하고 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얻는 사랑의 힘으로 섬길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저희 권사들도 한 모퉁이가 되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권사회에서 감당하는 사역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권사님들은 중보기도 사역부에 속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 19-20 말씀은 우리교회 중보 기도 사역부에서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두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장소에서 매주마다의 공동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급한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곡을 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무 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때에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픔과 기도의 소원을 함께 아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최고의 중보기도 자이신 예수님을 본 받아 기도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섬김(위로)의 사역입니다. 전도서 4:10 말씀과 같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인생의 중반기를 넘게 사신 권사님들은 삶의 여러 경험과 믿음의 연륜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찾아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사랑하는 지체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 섬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지체뿐 아니라 지역사회, 이민사회 또한 멀리 선교사님들까지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권사회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신 장례식 때에도 찬양으로 위로하고 힘을 얻도록 기도하며 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나 가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기억하고 찾아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위로하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권사회는 은퇴 권사님을 모두 합하여 55명의 권사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방영희	이영희	구숙자	정태인	박춘희

앞으로는 모든 부서도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더 많은 기도와 섬김의 사역에 쓰임 받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디모데 전서 3:11) 이러한 권사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권미자 권사
예일 크로마하프단 단장

예일 크로마하프단을 섬기면서

예일 크로마하프단은 2008년도 2월에 교회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찬양제를 준비하기 위해 뜻을 모아 14명의 단원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줄 멋진 인생, 멋진 취미생활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무미건조한 삶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찬양과 연주의 특권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작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연주하며 그 은혜를 기리고 싶은

마음들은 깊었기에 모임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첫 연주를 마친 대원들은 크로마하프 소리에 더욱 빠져들어 더욱더 열심히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크로마하프는 천상의 소리라고도 하며, 은혜의 향기 또는 영혼의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잘 하기는 힘들지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악기입니다. 지난번 성지 순례 때에는 다윗 성에 세워진 수금(크로마하프)을 직접 보고 유래와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원들은 감격하여 기도하고 사진도 찍고 돌아왔습니다.



크로마하프단의 성탄절 축하공연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을 찬양하며 연주하는 믿음의 단원 한분 한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믿음의 일꾼들이 크로마하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며 사명감을 잊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과 연주하며 찬양하다 보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감사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어진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찬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에 찬양하며 연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우리 크로마하프 단원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오늘도 귀에 익은 창조주의 음성을 들으며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크로마하프를 품에 안고 사명감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연주하는 일에 더욱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Autoharp (Chroma harp)의 유래



음악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크로마하프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정확한 학술명으로는 Autoharp 이다, 오토하프는 지터와 흡사한 모양의 악기이다. 크로마하프는 횡으로 장치된 현들 위에 일련의 화음 막대들이 놓여있어 연주하고자 하는 화음의 막대를 누르고 켜면 그 화음 밖의 모든 현들이 눌러져서 소음이 되므로 의도된 현들만 소리 나게 된다. 연주는 손가락이나 채피크로 현들을 켜며 의도하는 화음의 막대기와 연결된 코드 버튼을 눌러서 합니다.

성경 다니엘서 3장에 언급된 수금은 키사라이고 영어 성경에는 지터등으로 번역되었으며 특히 다윗은 수금을 잘 연주한 것으로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기는 반주악기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멜로디와 리듬을 다양하게 연주하며 특히 교회 예배에 많이 연주되는 여성적인 악기로서 우리나라에는 1971년대 초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널리 연주되어 오고 있습니다.

크로마하프의 역사적 유래 1875년은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되는 해였고 미국이 서서히 미합중국으로 자리를 굳혀가는 시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독일의 찰스 짐머맨이라는 청년이 필라델피아에 이주해왔다. 그는 일찍부터 악기의 설계 및 새로운

악기개발에 대한 경험과 집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히고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한 끝에 1881년 독일 악기인 지터에서 힌트를 얻어 5코드의 작은 크로마하프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처음 오토하프라고 명명하여 오토하프가 학술 명으로 인정되었으며 크로마하프라는 명칭은 그 후 미국의 판매회사에서 등록한 브랜드이다. 미국에서는 블루그래스라는 음악 연주 형식에 주요 악기로 구성되며 기타, 벤조, 바이올린, 만돌린, 콘트라베이스등과 함께 빠르고 경쾌한 음악뿐만 아니라 독주악기로서도 다양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는 교회의 찬송가, 복음성가에 사용되며 미국의 남부지역에서는 흑인 영가 연주에 절대적인 악기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국민학교에서 크로마하프를 기악교육의 기초로 삼아 하모니 익히기 및 화성의 진행에서부터 독주와 합주의 경험을 터득하게 하는 중요한 교육용 악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로마하프의 성경적 유래(다윗의 수금과 크로마하프)

성경 사무엘상 16장과 18, 19장 그리고 역대상 15장을 보면 다윗의 하프는 9현으로 된 악기로 가슴에 안고 연주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활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다윗은 그의 생애가 거의 유동적인 삶이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에는 목동으로서 부모님의 목축을 도와주었고, 그가 장성하기도 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겨 이스라엘에 장군으로 발탁된 후에 그는 20년 이상의 전쟁터 지휘관으로 다윗의 생애는 계속된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 동행하였던 것은 다름 아닌 킨놀이 있었음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고향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그리울 때에 다윗은 살아계신 여호와를 마음에 모시고 가슴에 킨놀이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현으로 어려움을 인내했으리라 생각한다. 연주 방법이 가슴에 안고 한다는 점과 악기의 모양과 음색이 밝은 점들이 크로마하프와 유사하기에 다윗의 수금이 크로마하프의 기본 모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일의 크로마하프단



조성식 집사
합렐루아 찬양대 지휘자

찬양의 본질

찬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또한 ‘엄숙함’ ‘경외심’ ‘경건성’ ‘거룩함’을 포함하는 것이다. ‘찬양이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넘치는 기쁨을 갖고 표출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 이름, 그리고 행위의 탁월함을 열심히 선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경축적인 예배이다’ 라고 말한 이도 있다.

우리에게 찬양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교회음악의 이해가 필요하다. 교회음악은 교회에서 쓰이는 용도에 따라 구분된다. 예배, 전도, 친교, 찬양 연주회 음악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불려지는 음악을 전부 찬양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찬양이란 예배용 음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예배음악은 신성하고 거룩한 예배에서의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우리는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찬양의 대상이 흔들리면 찬양의 본질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요즘 많이 불려지는 CCM을 보면 경계가 모호해서 전도용으로 불려야 되는 곡이 예배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교회의 찬양대 곡도 예외는 아니다. 지휘자의 영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휘자가 찬양대의 찬양 곡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음악과 구분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찬양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각 교회의 찬양대와 경배와 찬양팀은 모두가 영성이 뛰어나야 한다. 기도하지 않고 드러지는 찬양은 우리들의 자랑일 뿐이다. 리더자들은 영적인 눈으로 교회음악을 바라봐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곡이 불려지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박사과정의 전공을 고민하는 학생과 대화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 음악치료를 공부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음악치료학과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뉴에이지 음악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과정을 피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음악으로 모든 것을 치료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의 모든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지 못할 것이다. 전공하면서 교회음악을 통해 인간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만이 해결되어짐을 알려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본인으로 인하여 박사과정에 교회음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대화를 마무리했다.

교회음악은 가장 우선이 영성이다. 그다음은 음악적인 실력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찬양대와 찬양팀은 영성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또한 음악적 실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악 레슨도 받고 악기도 배우고 열심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민사회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음악적 훈련을 받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 해야 한다. 훈련된 자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놀란 것은 예일교회의 찬양부서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영성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이다. 제자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현장에서 잘 적용하는 교회이다. 또한, 교회 음악의 실천적인 좋은 예가 되는 교회라 할 수 있다.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특히 20주년 기념 CD를 제작하면서 많은 기도로 준비하게 하였고 이 CD를 통하여 찬양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우리의 찬양을 악한 영이 방해하지 못하게 날마다 깨어서 기도로 무장해야 하며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한다. 2013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할렐루야 찬양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마사야

이동홍 선교사

MASAYA PARA CRISTO!

끝없이 들어오는 마사야 전도대회 참가자들을 맞는 단기팀원들의 얼굴에는 오전 사역의 피로도 잊은 듯 반가운 미소가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길에도 오래 전부터 아는 친구를 만났듯 열심으로 화답합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에 눈물마저 글썽이는 단기팀원의 모습도 선합니다.

지난 2008년 2월 처음 개최된 전도대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여섯 번 거행된 마사야 전도대회는 뉴욕예일교회를 빼놓고는 어떻게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담임목사이신 김종훈목사님께서 여섯 번 모두 참석하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2008년과 2009년은 당시 뉴욕노회 선교부장이셨던 오영관목사님의 기획과 수고로 마사야 전도대회가 시작되는 초석을 놓으셨다면, 김종훈목사님의 비전과 내려놓음을 통해 마사야 전도대회가 확대되고 꽃피우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가 이처럼 성공적인 전도대회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여섯 번이나 계속해서 전도대회를 주관하리라고는 더더욱 생각조차도 아니 하였을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우리 뉴욕예일교회의 섬김이 가장 큰 몫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기에 가능하였던 일입니다. 올해의 경우만 해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였던 자매노회의 후원이 전무한 상태로 저 자신조차도 이번 대회는 하나님께서 쉬라는 사인으로 여기고 마사야 지역 목회자들에게 이번 대회는 어렵게 되었으니 취소하자고 말하였지요. 저들의 대답은 선교사인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면서 재정 형편이 어렵게 되었다고 우리가 먼저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사야 전도대회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김종훈목사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빛을 내어서라도 이번 대회를 치르겠습니다" 아마도 뉴욕예일교회의 섬김이 없었더라면 올해는 제가 아직까지도 빛더미에 앉아있었을 겁니다. 포기 직전까지 갔었던 전도대회를 뉴욕예일교회의 섬김으로 단순히 치를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921명이라는 가장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새로 영접하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 인지요! 마음으로부터 우리 뉴욕예일교회에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마사야 전도대회가 확대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2008년과 2009년 두 번의 대회는 우리 뉴욕노회가 주관하고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전도대회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2010년 전도대회를 준비하던 저에게 김종훈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보다는 직접 스페인어로 말씀을 전하면 보다 많은 심령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산에 있는 산성교회 허원구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2010년부터는 뉴욕의 경제도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었기에 노회산하 교회들도 힘을 내어 참여하는데 주저함이 많은 때였습니다. 아마도 김종훈 목사님이 전도대회 주 강사를 맡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이를 마다하시고 전도대회를 위해 사심 없이 섬겨주셨기에 오늘날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니카라과와 뉴욕의 교회들이 연합하는 기쁨에다가 한국의 교회까지 합세하는 더함의 은혜의 물꼬를 트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이지 제가 마음으로 감탄하는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연합하여 섬기는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대회 단기 팀의 사역에 관하여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그 내려놓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참 복됩니다. 연합하여 섬기는 그 섬김이 참 멋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때문에 섬기는 그 섬김이 은혜입니다.

다시 2014년 마사야 전도대회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뉴욕예일교회의 기도와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원하십니다. 지난 20년 예수님 제일로 섬겨온 뉴욕예일교회의 발걸음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되지 않으시겠습니까?

"Masaya para Cristo! "N.Y. para Cristo!"
 주 후 2013년 마사야에서 이동홍 드림



교사강습회



결신자를 위한 기도



안경사역팀



중보기도



필리핀

박인호 선교사

축복의통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을 할 때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이야기 하곤 합니다.

부모님의 혈육 가운데 순교자가 계시는 집안의 소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자랐지만, 결혼을 하기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착한(?) 아들답게 교회와 학교와 집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을 따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전부인줄 알았습니다. 교회 생활도 익숙하게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보다는 '우리 모두의 좋은 하나님'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일년 정도 하는 즈음에, 그 당시 화두가 되었던 '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꿈에 부푼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뉴욕에 도착 해보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선 순위가 뒤바뀌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장학금은 물거품이 되어 학비 걱정은 물론이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주급으로 어렵게 살아야하는 이민자의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학업은 포기 할 수 없어서, 하루 12 시간의 고된 일을 하고도 학교 수업과 과제를 감당하기 위하여 잠을 줄여가며 어려운 유학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학기를 가까스로 마치고 두번째 학기를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금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 하루 생활하기도 버거웠는데, 목돈의 학비를 저축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까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는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고, 미국내에서 새롭게 알게된 주변 분들에게도 학비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한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기 등록 마감일이 가까이 오며 따라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 가든지, 공부를 포기하고 학생 신분이 아닌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남아 있든지, 아니면 단지 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학비가 아주 저렴한 시립대학으로 전학을 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운의 꿈을 꾸며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6개월 만에 삶은 정반대의 벼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렵듯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 등록을 2주 정도 앞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바라며 아내와

함께 작성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야말로 가슴이 타 들어가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절기나 기도원에서 교우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한 적은 있었지만, 발등에 떨어진 나의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작성한 금식기도 기간이 지났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이상 부모님을 통해 경험한 간접 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문제를 넘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나 주셨다는 기쁨이 있었 습니다. 더 이상 문제로 인하여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미국으로 불러주신 귀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강을 되찾고 유학생으로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학비가 저렴한 시립 대학교로 전학을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감일이 임박하여 전학 수속을 위하여 학교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이 아침 일찍 저희 집에 급하게 찾아 오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다시 올 터이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계획하는 일에 대하여 결정을 잠시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채 전학 수속을 하루 미루고, 약속한 저녁 시간에 그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말씀하기를 기도하는 중에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도움을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체크 (Check)를 내어 주며 필요한 액수를 넉넉히 적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 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감히 기대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뺏 속까지 사무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진정을 하고, 저희의 형편과 자초지종을 그 분들에게 처음으로 말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녔던 대학원의 한 학기 학비가 \$6,300 이었는데, 머뭇거리며 저를 대신하여 필요한 교재도 함께 사라며 선뜻 \$8,000 을 적어 주셨습니다. 지금의 \$8,000 도 큰 금액이지만, 25 여년전 당시의 \$8,000 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여느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12 시간을 일하여 어렵게 저축하신 것을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연약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비를 주신 분의 뜻에 따라 감사의 표시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전혀 내색하지 못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건없이 거저 받은 학비로 다시 등록을 하고 학교에 계속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한 학기를 마치게 되면서, 또 다시 비싼 등록금을 지불해야만 하는 시간이 돌아 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다니면서도 시간이 주어지는대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학비를 저축 하기에는 역시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주변에 내색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엎드리기로 했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금식으로 작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기적으로 학비가 채워질까 하는 의구심으로 더 어려운 과정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크게 보이고,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던 학업도 다 내려 놓고, 더 이상 내 의지로 어렵게 지탱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만 바라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성한 금식 기도 기간이 끝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등록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그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학기에 학비를 주신 그 분들이 학기 등록에 맞추어 정확하게 또 찾아 온 것입니다. 그동안 그 분들은 단 한번도 학비에 관하여 궁금해 하거나 학교 일정에 관심을 표한 적이 없었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이 6 개월만에 찾아 오셔서 똑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중에 저희에게 찾아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학교 등록비에 쓰라고 \$8,000의 체크를 또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선물이니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제가 놀라고 감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등록금을 흔쾌히 주신 그 분들도 기도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격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인공 지능 (AI)'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는데, 어려움을 통하여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 지능 (SI)'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기도가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비로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좋은 조건으로 한국에서 근무했던 직장의 미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형편 가운데 드디어 저축을 할 수 있는 수입이 생기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찾아 온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허락해 주신 \$16,000을 최대한 빨리 갚기 위해서 유학생과 별로 차이가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주셨지만, 단순히 큰 돈을 빚지고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빛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최우선으로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빚을 다 갚고, 가슴이 저릴 정도로 감사하고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의 빛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오랜만에 저희를 위해서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저희와 교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가 학비 문제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6,000을 전부 갚으므로 인하여 더 이상 빚진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형제를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적은 액수이지만 그동안 저축한 돈을 저희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 조건없이 믿음의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장으로 인하여 뉴저지 (NJ)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많은 시간이 지나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믿음의 형제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으며,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체크를 보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한걸음 한걸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역동적인 기적의 흐름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선교 현장의 한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 날 수 있을까하여 주님의 은혜를 곰곰히 헤아려 보면, 그 뿌리에는 25여년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조건 없이 주신 '학비'에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끈고한 가운데 값없이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저 역시 그러한 축복의 흐름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곳까지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이곳 선교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고등학교를 가까스로 졸업한 학생들의 미래는 정말 암담하기만 합니다. 학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야기해도 자신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공허한 이야기 처럼 지날 때가 많았습니다. 여학생들은 월급이 \$50도 안되는 가정부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고, 남학생들은 농번기때 품꾼으로서 일을 하기 위하여 많은 경쟁을 해야만 하기 때문 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며,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학생들에게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낱같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비하신 신실한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희망이 없어 보이는 25 명의 학생들에게 꿈같은 대학에서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5여년전 경험한 축복과 기적이 끊이지 않고 이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언젠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크게 증거하며 요셉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귀히 쓰임을 받으리라 확신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요청

1. 디고스 지역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2. 2014년도 장학 프로그램을 위하여
3. 스파마스트 대학 선교를 위하여
4.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5.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결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49:22)**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을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rho & Yeonji Park (#215048)" 라고 기입 하신 후, 여명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과테말라

김근태 장로
치과사역팀장



과테말라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2013년도는 내가 신앙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은 해 임에 틀림이 없다. 이 모든 일들이 예일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후부터 시작되었다. 간증할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의 과테말라 선교 경험담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죄송한 것 중 하나가 한번도 단기선교를 가 보지 못한 것이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일주일 이상 사업체 문을 닫는 것이 부담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예일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던 주일에 니카라과 선교팀을 인솔하신 김종훈 목사님께서 선교보고를 하시고 송광수 장로님께서 간증하셨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나도 선교 가고 싶다 하는 열망이 내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아내가 뜬금없이 “김 장로가 전에부터 예일교회에 가면 단기선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라고 담임목사님과 여러 중인들 앞에서 선포해 버리고 말았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순종했다 그리고 가는 김에 큰아들 케빈이도 데리고 가기로 했다.

드디어 다음날 월요일 새벽 4시에 교회에 집합했고 라과디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탈 비행기가 통신장비 고장으로 연착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중 한 분이 예약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55 명이 다 필요하셨나 보다. 그분이 다시 수속하고 우리 54명에게 합류할 때까지 비행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장장 9 시간을 기다려서야 비행기를 탈수 있었고, 텍사스와 아틀란타를 거쳐 과테말라에 도착했을 땐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기다리고 있던 두 버스에 나눠 타고 험한 산길을 빙글빙글 돌아가며 높이 2,200m가 넘는 알모통가 근처에 있는 숙소로 도착했다. 뉴욕시간으로 새벽 6시 그러니까 집을 나선지 딱 26시간 만에 도착한 것이다.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한 시간 정도 잤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아침 QT 를 조별로 가졌다. 우리 조는 어른 4명 하고 아이들 3명. 어제 피곤함이 얼굴에 그대로 보였다. 그렇지만 모두들 진지하게 모임에 참여한다.

사역지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인데 어제 일로 스케줄이 조금 빠듯하게 되었다. 아침을 서둘러 먹고 알모롱가 갈보리 교회로 향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깊은 시골마을에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 아담한 체구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까무잡잡한 얼굴 그리고 여자들 머리에는 각종 장신구들이 어우러져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인디언 같아 보이기도 했다. 아무튼, 우리가 현지에 도착했을 때 마침 큰 장이 열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역할 교회 바로 앞에 큰 광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종 채소와 과일 등을 사고 팔고 있었다. 흥당무가 어찌나 큰지 내 팔뚝만 했다. 알모롱가 사람들은 활기가 넘쳐 보였다. 알모롱가에서 재배되는 토산물을 사기 위해 가까운 지방 뿐 아니라 멀리는 국경을 넘어온 상인들이 많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왜 알모롱가를 기독교 도시로 변화시키셨는지 이해가 되었다. 뉴욕에서 그 유명한 선교 팀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상인들이 그날 장을 순식간에 끝마치고 우리가 있는 사역지로 몰려 들어왔다. 장사해서 돈 벌어, 천금보다 귀한 복음 들어, 황홀한 부채춤에 재미있는 판토마임 까지, 그리고 공짜 안경에 헤어 스타일링. 이제 의료 혜택만 받으면 저들은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물에 완전히 일망타진.

나도 부랴부랴 내 부스를 셀업했다. 내가 맡은 일은 치과사역. 형편상 다른 치료는 할수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치아발치 위주로 사역하기로 했다. 한참 환자 받을 준비 하고 있을 때, 어떤 건장한 남자가 우리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자신을 현지 치과의사라고 소개하며 이름은 길버트라고 했다. 그의 팔뚝을 보니 황소도 때려잡을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꽤 많은 환자를 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환자 치료실이 좁아서 첫째 날 사역은 내가 하고 길버트와 김광남 집사님이 어시스트 해주기로 했다. 근처에서 사업하시는 어떤 교포분이 기구소독을 자원하시고 통역해 줄 학생도 두 명 확보. 모든게 너무 순조롭게 준비 되었다.

치아가 부러지고 씹어 뿌리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날카로운 부분에 혀와 볼살이 찢기고 상처가 나 있었다. 염증이 심해서 치통이 심한 환자들이 많았다. 빼야 할 이가 한둘이 아니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유치가 씹어 문드러져 까맣게 된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애들이 두 살도 되기 전에 음료수 대신에 코카콜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있으면 치아관리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없이 이를 빼고 또 뺐다.



의료스테이션을 준비하는 선교팀



대통령궁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목사님



정성어린 치과사역



모두 하나가 된 집회 참가자들

하루를 마감하는 저널 시간에 지난 이틀을 돌아 보았다. 26시간의 기다림과 설렘, 위기, 피곤, 그리고 첫 사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당신 앞에서 잠잠하게 하셨다. 사탄은 선교를 방해하려고 별짓을 다 해 보았지만, 우리를 막지 못했다. 우리의 몸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우리의 사역은 너무 은혜스러웠다. 손목에는 힘을 주셨고 마음에는 영혼 사랑하는 열정을 넣어 주셨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게 하셨다. 우리는 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물론 첫째 대상은 현지인이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무언의 눈빛에는 사랑이 듬뿍 담긴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서로가 주고 받는 한마디의 칭찬이 우리의 하루를 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참으로 선교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작은 능력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선교 여행 중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잠자기 전에 갖는 저널 시간이다. 두 번째 날은 깨알태낭고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사역을 마치고 저녁 먹은 뒤에 모여서 그날 사역을 돌아보며 글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조에서 한두명씩 나와서 발표도 하였는데 케빈이가 자기 조를 대표해서 나왔다. 아빠가 환자 치료하는 걸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구경도 하면서 제 판에는 느낀 게 많았나 보다. 발표하라는 사역 소감은 안하고 전에 말썽 부릴 때 아빠가 자기를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 준 것에 감사한다는 말을 했다. 자신도 아빠같이 치과의사가 되서 선교하겠다고 울먹거렸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마음이 짱했다.

금요일 아침 우리 선교팀은 다시 과테말라 시티를 향해 떠났다. 가는 길에 전통시장도 구경하고 옛 유적지도 보았다. 그날이 특별히 기억나는 이유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음식을 먹었기 때문인데, 과테말라 한인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해 주셨다. 메뉴는 미역국. 정말 먹어본 미역국 중 최고였다. 마지막 사역은 과테말라 시티에서 두어 시간 떨어진 산후안 지역 사카떼베게스 라는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이틀 연속 했다. 특히 마지막 날은 정말 바쁜 하루였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벌써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먼저 복음을 듣고 각 사역지로 안내 되었다. 점심 잠깐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환자를 보았다. 그날은 김연신 집사님께서 내 옆자리를 지켜 주셨는데, 손놀림이 프로였다. 옆에서 도우시면서 누워있는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위로도 해 주셨다. 김상용 집사님께서 뒤에서 든든히 기구들을 소독해 주셨다. 다른 사역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치과 사역만은 아직도 줄이 길게 서 있었다. 정말 내 손목이 지금 온전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기분에 그날 수백 명은 본것 같다.

과테말라 선교의 절정은 마지막 날 대통령 궁 광장 앞에서 있었던 전도집회였다. 뜨거운 찬양과 아름다운 부채춤 그리고 감격적인 판토마임, 여기에 영감 넘치는 김종훈 목사님의 강권적인 말씀이 선포될 때 갑자기 어디서 비둘기떼가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듯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 성령님의 초대에 순식간에 광장은 결신자로 가득 찼다. 우리 55명 예일 선교팀은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눈에서 그칠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성령께서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심을 느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 내년이 벌써 기다려진다.

단기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잠깐이었지만 피부로 느낄수 있었다.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 우리의 아름다운 동역 가운데 너무 선명하게 보여졌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귀한 영적 체험이었다. 예일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영적 지도자 김종훈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윤희주 장로님과 박재우 집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린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할렐루야!



다민족 전도

조종희 장로 (전도위원장)



마지막 때를 위하여 예비된 감추인 보화의 땅 -맨하탄 전도-

Jesus Christ Witnesses (JCW)의 시작

2007년 7월 볼리비아 단기선교 중에 한 꿈을 꾸게 되었다. 나는 누군가와 함께 산 능선 너머에 물이 차오르는 호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산과 산을 막아서 만든 큰 호수에 거의 물이 2/3 정도 차있었고, 수면 위로 수없이 많은 고기들이 뛰어 오르고 있는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후러싱 동양식품 앞이나 지하철 입구 혹은 공원에 나가서 전도 하고 있었다. 그 꿈의 뜻은 수 많은 고기는 만국의 백성이며 큰 호수는 뉴욕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진실한 전도자를 만나기를 원하던 간절한 나의 꿈이 약 1년 전에 현실로 이루어 졌다.

2011년 10월 22일 Jesus Christ Witnesses(JCW) 각자 전도하던 사람들 6명이 맨하탄 사무실에서 함께 모이게 되었다. 나는 전도자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일교회에서 제공하는 전도지와 (각자 전도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없는 분들을 지원 하였음) 예배의 장소와 간단한 점심 식사를 매주 기쁨으로 제공 하였다. 내가 일하는 배상준 집사의 사무실에서 매주 토요일 11:30분에 모여 예배 하고 맨하탄 미드타운 메이시 백화점 앞, 타임 스퀘어, 펜스테이션, 브라이언 팍, 브로드웨이와 7에비뉴를 중심으로 전도한 후 오후 4:30분에 다시 모여 기도와 간증으로 마치게 되었다.

성장의 기쁨

일본, 중국, 남미, 흑인 등 YOUTH로부터 노인,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역자와 평신도 다양한 “예수의 증인들”이 모여오기 시작하자, 약 6개월 후에는 사무실 장소가 부족하게 되었고, 1블럭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를 토요일만 사용 하도록 렌트를 하여서 모임을 계속 하였다. 그 가운데는 우리교회의 박성하 전도사님과 박상미 집사님을 비롯한 몇 분의 찬양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맨하탄 메이시 백화점 앞에 모여 찬양 전도로 시작하게 되었고 팀 별 전도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전도대원들



일대일 다민족 전도현장

이어지게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후러싱에 제2의 JCW가 조직되어 매주 월요일에 모임을 갖고 전도 하고 있으며 뉴저지 에서는 NJ 뉴왁공항을 중심으로 홈리스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 중 어느 평신도는 전도의 사명을 품고 스리랑카로 떠나기도 하였다

마지막 선교의 지름길

나는 이모임의 목표를 3가지로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

- 1) 믿지 않는 자 (모든 민족) 에게는 복음을
- 2) 믿는 자 에게는 열방을 향한 증인되게 함을
- 3) 모든 교회에 열방을 향한 전도의 불이 붙기를!

중요한 것은 전도의 대상이 모든 민족에게 초점이 맞추어 있다는 사실이다. 오대양 육대주 온 세계 민족이 모여있는 뉴욕에서 우리 민족만 찾아 전도하는 틀을 벗어나 전도의 방향을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민족에게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마24:14)모든 민족을 복음화 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내게 확신을 주셨다.

해마다 4천만 명 이상 관광객이 모여오는 뉴욕!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모여있는 맨하탄은 마지막 선교의 지름길이다!

금년도 성령 축제 때에 호성기 목사님은 이 시대 선교 물결을 제4의 물결이라고 설교하셨다. 제1 선교시대는 영국의 윌리엄 케리가 시작한 연안 선교 이며, 제 2선교시대는 내지선교, 제3 선교시대는 종족선교, 제4 선교시대는 디아스포라 선교시대 이며,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흩어진 복음의 종자씨라고 설명 하셨다. “내가 미국땅에 흩어져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흩어져 온 복음의 종자씨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한다. 여기까지 흩어져 왔는데 자동차를 타고 30분 가면 선교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주변에 다 와 있다.” - 호성기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

찬양 전도의 놀라운 효력

약 1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 증인들”은 놀랍게 성장하였다. 평균 30여명이 모여서 약 1시간에 걸쳐서 찬양으로 전도를 하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보혈의 능력 주의보혈 능력 있다... 예수께 고하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와 스페니쉬 어로 반복해서 부르고, 우리가 단기선교 때 배운 스페니쉬 찬양을 부를 때면 세계의 심장부 맨하탄 한복판에서 파도처럼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비디오를 촬영하기도 하며 어떤이들은 찬양에 합류하기도 한다. 그리고 즉석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서툰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한다. 심지어는 모슬렘까지도! 할렐루야! 찬양이 끝나면 우리는 각자 원하는 곳으로 팀 별로 흩어져서 전도 하게 된다. 주님을 영접한 분들을 위하여 애프터 미팅에서 기도하지만 그분들의 명단을 카톡에 올려서 함께 기도 하게 된다.

재정비

처음 시작 하였을 때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여서 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여서 운영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난 뒤 돌이켜 보니 처음 순수한 (오직 전도만을 목표로 모이던)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형식화 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커뮤니티를 해산하고 예배의 설교를 전도 교육과 간증으로 대체 하고 오직 전도에만 총력을 기울이도록 재정비를 하게 되었다. (가장 현실적이며 손쉬운 전도 교육에 누구나 환영하며 초대합니다)

이제 2014년 새해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어떤 방향으로 인도 하실지 더욱 기대가 된다. 이 사역에 우리 예일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칭찬만 듣는 서머나 교회처럼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새해에는 예일교회가 모든 교회에 열방을 향한 전도의 불을 붙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한다. 주님이 주신 유일한 기회- 담임 목사님이 교협의 회장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당 회원이 교협의 이사장으로 일하시는 한해이기에 더욱 간절하다.

Soli Deo Gloria!! -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

〈그대가 진정 예수님을 제일로 삼기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한 전도의 대열에 합류하십시오. 그대가 진정 구원에 기쁨에 감사 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썩듯 썩는 성령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 일은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Soli Deo Gloria! :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박재우 안수 집사 (단기선교사역부장)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막 28:19-20)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과 힘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2013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선교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서 니카라과 마사야 선교대회와 과테말라 단기선교를, YG(youth group)에서는 work camp를 다녀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올해엔 우리교회에 선교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니카라과 마사야 선교대회는 "Masaya Para Cristo"란 주제로 지난 5년 동안 연이어 열렸고, 5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사야 지역 교회가 단결하여 한번 더 대회를 열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으로 선교대회가 한해 더 열리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선교팀을 구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때는 Sandy 피해로 어려운 때였고 선교팀을 구성하려고 보니 환경이나 여건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부 위원장이신 윤희주 장로님은 권사님이 위중한 가운데 병원에 계셨고, 어떤 분은 권총강도를, 어떤 분은 Sandy 피해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등등... 그렇지만 제 마음 속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시는 만큼 그곳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클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선교 가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힘든 일을 겪음으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많이 연약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를 통하여 가기 전에는 여러모로 힘들어 하다가도 선교 가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많이 회복됨을 체험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마사야 선교대회를 안 갔으면 후회할 뻔 했습니다. 모든 선교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었고 선교대회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교 내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선교였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일대일 전도와 중보기도, 한방사역, 안경사역으로 섬기고 난 후 저녁 시간에 선교대회를 여는 동안 야구장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인파는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가득히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선교팀과 부산 산성교회 선교팀 또 현지에서 교육을

받은 전도팀이 앞으로 늘어서서 그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야구장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야구장 밖에는 그들을 태우고 온 노란 버스로 꽉 차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선교 일정이 은혜롭고 좋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선교대회를 통하여 많은 결신자들이 나왔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였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말씀 선포 후에 목사님이 결신자들을 초청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온 선교팀원들과 전도대원들이 결신자들을 붙잡고 기도하였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의 역사 하심과 감동으로 눈물의 기도를 하며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아직도 그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첫째 날 제가 만난 한 가족이 생각납니다. 한 아주머니가 어린 세 자녀와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는데, 그들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한 후 눈을 떠 보니 어린 아이와 어른 모두가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져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성령 충만한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혹시 미쳐 앞으로 나오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이 있나 뒤쪽을 돌아 보는데, 그때 현지 전도위원들이 나를 한 여인에게로 데리고 가더니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힘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기도했고 기도하는 동안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과 허물이 눈물과 기도로 회개하며 회복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마사야 선교대회를 통하여 많은 결신자들이 나왔지만,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하여 992명의 결신자들이 나왔으며 각 지역의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지만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앞서서 야구장과 전광등을 공짜로 쓸 수 있게 준비하시고 수많은 결신자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동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 하고 애쓰신 이동홍 선교사님께 감사 드리며, 선교사님과 섬기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니카라과 마사야 선교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후 우리교회에 선교의 은혜가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과테말라 단기선교를 신청한 사람이 무려 55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축복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선교는 다른 데와는 달리

현지에 있는 과테말라 한인교회와 연합하여 팀 사역을 하게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지 사정을 모르는 우리는 자칫 선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선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과테말라 단기선교는 장년 23명과 EM 9명 중 고등부 21명 유년부 2명 (총 55명) 이었으며, 특별히 이번 선교를 위해서 부채춤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부채춤으로 인하여 선교에 큰 힘이 되고,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또 늘 보아도 감동적인 메시지가 전해지는 YG 판토마임, 사람의 눈만 아니라 영안도 밝게 하는 안경사역, 치과 사역, 한방사역, 미용사역, 의료사역, 준비한 선물 코너 등 모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 받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파송예배 후 새벽에 교회를 출발하여 공항에 도착하였지만 탑승수속 과정과 비행기 고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공항에 머물러야 했고, 결국 두 팀으로 나뉘어 출발해야 했습니다. 또 밤늦게 현지에 도착하여 깊은 산길을 달리며 추위에 떨기도 하고,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선교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이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선교인 것을 체험하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알모롱가 사역은 몹시 기대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미 목사님이 소개하였듯이 알모롱가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범죄로 인하여 술집과 교도소가 많이 있었던 황폐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한 청년에게 역사하심으로 기도와 복음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신 곳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도 알모롱가에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됨으로 술집과 교도소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므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농작물이 풍성하게 잘 되기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알모롱가의 아침 모습은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산 언저리엔 구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그 목사님(마리오)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 했습니다. 모든 선교 일정에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지만 이번 선교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니 것을 보고 느낀 것을 간단하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과 오후 사역 후에 특별히 저녁에 revival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테말라 한인교회의 찬양과 예일교회 부채춤 판토마임에 이어서 목사님 말씀 선포 후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비록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에 자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분들과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하였고 우리 모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아주머니를 위하여 뒤에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은혜를 베푸사 역사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도 임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며 또한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힘들다 하며 기도할 때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아주머니가 뒤로 튕겨지면서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뒤에서 받기는 했으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면 큰 일 날 뻔했다는 생각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허공을 휘저으며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분을 안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던 김희경 집사님이 와서 이 분을 회복하도록 맡겨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분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곳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곳은 대통령 궁 앞에서 전도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각 조로 나누어 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노방전도를 한 후에 큰 광장에 설치된 무대를 중심으로 전도 집회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과테말라 선교팀과 예일교회 선교팀이 하나가 되어 찬양과 부채춤, 판토마임, 말씀이 연이어지고 있을 때 큰 비둘기 무리가 두 번이나 무대 위로 날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에 너무 인상적이었고 우리 모두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성령의 비둘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과테말라 한인 교회와 예일교회가 연합하니 힘이 배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광장에 있던 많은 사람과 선교팀이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며 춤추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모든 선교사역이 너무나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과테말라 선교에서 가장 기쁘게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뉴욕으로 돌아온 후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가지만 큰 믿음 없이 그냥 다녔고, 또 기도할 때에 사람이 쓰러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가짜라고 믿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직접 보고 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여 주셨습니다. 집사님을 위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증거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8)**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므로 우리 예일교회가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또 그 동안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신 목사님, 장로님, 선교팀 모든 분들과 과테말라 한인교회와 목사님, 선교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글을 쓰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2014년에도 선교를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예일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죽기를 바라며

전도를 하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하는 동무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 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있는 이 뉴욕의 맨해튼은 전 세계에서 수 많은 민족들과 방언과 족속들이 모여 드는 열방입니다. 저들이 사는 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기에, 이곳까지 보내 주시어,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전도로,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함께 죽기를 바라면서

한 많은 이 세상 떠나는 사람아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이제 내려놓고
 밝고 따스한 곳,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영광중에 빛 되신 하나님과
 십자가에 죽으시어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과
 이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이긴
 충성되고 진실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네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더이상 우리를 해치 못하리라
 악하고 더럽고 추하던
 죄와 악이 그리고 미움과 욕심들과
 자기애에 빠져 평생을 허우적거리며
 재물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라 하며
 편견과 아집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이땅에서의 삶을 벗어버리네.

십자가에서 불러주신 내 이름에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분의 심사와 관심을 닦기를 원했지.
 거룩하신 사랑하시는 이를 닦으리라
 순전하게, 그리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 보리라
 주님이 남겨 주신 간곡한 말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부탁한다, 이루기 위해
 나누며 섬기며 전하는 삶을 살자, 몸부림 치면서.

동일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진,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직은, 부르신 이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과 소명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함께 쫓대를 향하여 뛰기를 쉬지 말자고,
 다만, 우리의 목표가 바르고
 가는 이 길이 바르다면
 이 길의 마지막은 주님 기다리시는
 천성문이 되지 않겠는가.

험한 이 길, 높은 이 길을 함께 하라고
 당신들을 동무로 불러 주시고 역여주신
 전지하신 이의 지혜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이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세워주신
 그분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 드리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속 전략 사령부 소속, 특수 부대의 최 정예 요원들이 아닌가 합니다,

적의 심장부에 투입된,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르신 소명을 위하여, 이미나 삶과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죽기 위하여 살며, 살기 위하여 죽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어부들인지 모르지요. 물 때와 물 길을 잘 아는 노련한 어부들 말입니다. 그래서, 맨하탄의 그 바쁜 그리고 그 좁은 길목에 몰리는 열방을 낚으라, 당신들이 아니면, 안심하실 수 없으신 분이 인정한다. 자나 깨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오직 전도에 목숨을 댄.



지역사회에서의 전도 찬양

앞서 가신, 순교자들을 부러워하며, 나도 저렇게 살리라, 결단하지 않았었나요? 우리들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자만에 도취한 그 잘난 세상을 판단하며, 죽은자 같으나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기에, 세상과 구별되는 순결하고 성결한 거룩한 영을 가진자 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험한 길입니다, 쪼개지는 아픔과 분리, 망가지고 바스러지는 통증과 괴롭들 미움과 소외와 격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며,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환희의 그 날에는— 위로와 칭찬으로 반가워하시며 대견해 하시어, 우리를 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뵈는—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거룩한 도구요 통로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이라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하시어 우리의 구속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르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동행하시며 동역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맨하탄의 길목을 지키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고깃배에 오른,
춧자가 감사드리며

신동인 집사



박제진 집사



나만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한 마사야 집회

니카라과 선교를 갈 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변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고, 오히려 교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별로 교회를 주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선교가 있기 전 주에 이집트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이 폭탄 테러를 당한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언론에서는 정부가 위험지역이라고 선정한 곳에 찾아간 신도들이 문제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하다는데 굳이 찾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광신도들이라고 헐뜯었습니다. 저에게는 니카라과도 위험한 곳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반군이 어떻게 하면서 저에게 위험한 곳을 찾아가는 광신도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였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가 저에게는 처음 가는 선교 여행이고, 게다가 10살 된 딸 아이를 데리고 가니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 걱정은 출발 일자가 가까워질수록 커졌습니다. 혹시나 테러리스트들에게 인질로 잡히면 어떻게 하지? 총알이 날아오면 어디로 피하지? 예방주사도 안 맞았는데 말라리아나 열대 병에 걸리지는 않을지 걱정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10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업하고 첫 선교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무실 사정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선교를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개업을 하고 나니 이제서야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 자유를 이용해 사무실을 닫고 무엇을 한다면 그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0살 난 딸아이는 일주일간 방학이니 선교에 데리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어린 동생들 때문에 흔한 놀이공원 한번 가본 적이 없는 큰 딸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언제 플로리다에 가 볼 수 있냐고 물으며 자기 반에서 플로리다에 안 가본 사람은 자신 뿐이라고 할 때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단기 선교가 플로리다에 가는 것 보다 더 큰 선물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학생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많은 것을 배워서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를 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린 대로 저는 니카라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작은 용도이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넓히는데 쓰임을 받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사역을 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아침 8시 반, 야구장에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서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야구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안경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베테랑 집사님들로부터 검안을 배웠습니다. 뉴욕을 출발할 때부터 배운 것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검안을 해서 안경을 주고, 그들이 밝은 눈을 갖게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많은 사람들에게 안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욕심을 내었습니다. 다른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검안석을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드디어 첫 사역을 위해 한 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좌절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안경 사역을 위한 스페인어 종이를 받기는 했지만 한번 건성으로 읽어 보기만 했으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에서 벗어난 분이 찾아 오니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받은 할머니는 한 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었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객기 좋게 의욕만 앞세워서 검안석에 앉았지만, 단 한 분에게도 안경을 못 드리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다른 사역팀원들을 바라보며 제가 참 쓸모가 없다며 자책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한탄했습니다. 왜 내가 검안, 침술, 치과, 한의, 의사 등 세계 어디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을 공부하지 않았던가?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해서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탈 사람들을 고르는데, 농부, 목수, 기술자, 의사, 학자 등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방주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와서 사람들이 싸우면 해결 해 주겠다고 했더니 방주에서 당장 내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날 밤늦게 호텔에 들어와서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 되었지? 아주 큰 것이 잘 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나”를 앞세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안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작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보람, 욕심이 앞선 것이었습니다. 속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전화기로 인터넷 사진을 뒤져가면서 저 만의 속성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쓸 치팅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 사역을 시작하면서 검안이 아니어도 좋으니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다시 검안석에 앉았습니다. 이 번에는 배운 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찾아 왔습니다. 한 분씩 검안을 하면 서 조금씩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치팅 시트를 보면서 간단히 스페인어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용훈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뚝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사람은 10대 초반의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검안을 통해 안경 처방전을 썼는데, 엄마가 와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통역을 해주시는 목사님을 요청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안경 처방을 의사로부터 받았는데 처방 받은 안경이 -2.0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방을 해준 안경이 바로 -2.0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것이 정말 제대로 배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고,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데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은 이틀간의 선교 대회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야구 경기장 입구에 줄을 설 때만해도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집사님들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언론에서도 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 측 추산 5천명 등 참석 인원 추계가 엉뚱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으로 알았습니다. ‘한 5천명 오면 많이 오는 것이겠지. 설마 만 명 이상이 모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전도대회의 교통수단인 버스들



큰딸 다윤이와 함께

그래서 일부러 경기장 입구 맨 앞에서 계신 지재홍 장로님 옆으로 갔습니다. 내 눈으로 경기장 안과 밖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버스들이 속속 도착하였습니다. 버스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버스는 미국에서 스쿨버스로 쓰다가 폐기된 차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재활용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스쿨버스는 에어컨이 없는 차들입니다. 미국에서도 더운 여름날 스쿨버스를 타는 것은 곤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 입고, 자는 어린 아이를 안고 닭장 같은 차를 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럭 뒤에 가득 서서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야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임을 깨달았습니다. 참석자 수는 수 년 전 뉴저지에서 열린 KBS 열린 음악회 때 모인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고, 저는 그 동안 보고된 참석자 수가 축소 보고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의 막바지는 결신의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저는 내용도 모르고 검은 유니폼을 입은 진행 요원들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들은 열심히 결신자들을 안내하고 결신 카드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들 이었는데, 제가 방해할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어떻게 할지 몰라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유니폼을 입은 한 청년이 제 손을 잡아 끝었습니다. '코레안 프레이'를 하면서요. 가보니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아주머니가 있었고 청년들은 한국인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선교를 온 한국인 선교단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에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분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요. 그리고 불편한 몸도 치유해 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돌아보니 김중훈 목사님이 저 멀리 서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사님께 달려가서 기도를 부탁 드렸습니다. 저 같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의지한 그분에 대한 기도의 빛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저는 하나님을 톡톡히 느낄 수 있습니다. 10살난 딸아이에 대한 신뢰감도 생겼습니다. 맡겨진 일을 충실히 잘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으로 무장되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딸아이를 데리고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한 집사님께서 선교를 다녀오면 비운 기간 만큼 일을 못해서 많이 잃는 것 같이 생각 들겠지만, 이 후에 더 많이 채워 주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놀랍게도 선교를 다녀온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깨진 부동산 계약들이 되살아서 사무실로 의뢰가 들어 왔습니다. 취업비자와 관련해서 문의와 수입이 잇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되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저를 바쁘게 사용하셨습니다.

선교를 통해 제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저와 저의 가족만을 위한 신앙생활과 사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저는 저라는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뉴욕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풍족한 생활은 아니지만, 조금씩 선교를 위해 헌금하고,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께 도움이 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 드리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저희 가정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저의 딸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